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
(26년-1차)

202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6년-1차)

제1장 기관평가 개요	1
제1절 목적 및 평가대상	3
제2절 평가 추진체계	8
제3절 2026년 기관평가 주요내용	10
 제2장 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21
제1절 기관운영평가	23
제2절 연구사업평가	35
제3절 통합평가	45
 제3장 기관별 평가결과의 적절성	 49
제1절 기관운영평가	51
제2절 연구사업평가	54
제3절 통합평가	59
 부 록	 83
부록1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26년 1차)	85
부록2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88

표 목차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6년-1차)

〈표 1-1〉 평가대상기관 현황	7
〈표 1-2〉 '26년 1차 평가대상 기관 현황	10
〈표 1-3〉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평가항목	15
〈표 1-4〉 상위평가 결과 도출(안)	16
〈표 1-5〉 '26년 1차 기관평가 추진일정	19
〈표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6년 1차 기관운영평가 대상 기관	24
〈표 2-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6년 1차 기관운영평가 대상 기관	29
〈표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6년 1차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	35
〈표 2-4〉 해양수산부 소관 '26년 1차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	41

그림 목차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6년-1차)

[그림 1-1] 출연연구기관 자체·상위평가 추진체계도	8
[그림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24
[그림 2-2]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30
[그림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사업평가 추진체계	36
[그림 2-4] 해양수산부 연구사업평가 추진체계	41
[그림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평가 기본 체계	45



PART 01

기관평가 개요



기관평가 개요



제1절

목적 및 평가대상

1. 목적 및 법적 근거

(1) 목적

-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와 역량을 제고하고, 기관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른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제시

(2)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연구기관 자체평가(제10조), 연구기관 상위평가(제11조)
- 「제5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6~’3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5.10.30)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4.10.30)

(3) 추진 연혁

- 성과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편 및 상위평가제도 도입(’05.12월)
-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12월)
 - 상대평가 → 절대평가로 전환, 지표 간소화 등

- 질 중심 평가 강화 및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등을 담은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4월)
 - 질적 우수성과 및 고유임무 중심의 평가, 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
- 핵심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 선정, 자율적 성과 점검을 통한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등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16.3월)
 - 임무중심형 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보완 및 종합평가 방안 마련 등
- 출연연의 중장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평가 제도개편 등을 담은 「’19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18.10월)
 -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한 계획서 수립·기관평가 수행 등
 -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 평가만으로 평가하도록 제도 개선
- 출연연별 R&R 이행 및 사회·경제적 역할 강화 중심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 수립(‘20.8월)
 - 출연연 연구성과의 과학기술·경제·사회적 영향력 평가를 실시하여 지식의 창출을 넘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연구개발 유도
-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및 평가부담 경감을 위한 「’21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0.10월)
 - ’18년 제도 개편 이후, 경영성과계획서에 기반한 종합평가 체계 종료 및 기관운영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항목 제외 등 자체평가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위평가 간소화 및 전략컨설팅 도입 추진
- 평가결과 환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서 수립단계 점검 강화 등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2.10월)
 - 기관운영계획서 상위점검 신설하여 기관의 R&R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영성과목표 수립 유도(연구사업계획서는 전략컨설팅 제도 활용)
 - 부설기관 등 소규모 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평가항목·방법 간소화 추진

■ 평가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 평가 등 「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3.10월)

- 피평가 출연(연) 출신 인사의 평가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평가위원 구성 미흡 시에는 평가 결과 불인정 및 재평가 가능
- 상위평가에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 평가지표 신설하여 평가위원 풀 확대 등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및 성과의 중복인정 방지 등 「25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4.10월)

- 자체평가 위원 구성 시, 피평가기관 관련 연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체평가의 전문성 강화
 - ※ 기관운영 평가 : 연구분야 전문가 포함, 연구사업평가 : 전략목표별 연구분야 전문가 포함
- 성과의 발생시기가 평가대상 기간에 속하는 성과에 한해 인정하고, 동일 성과에 대한 중복 인정(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동시 인정) 불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통합평가 개편,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상위평가 방식 효율화 등 「26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5.10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자율적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을 통합한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26년 실시)
- 자체평가 위원 구성 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평가대상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제척기준 완화(기존 : 최근 15년)
- 기관 발전 방향 제시 등 중복·복잡한 상위 평가항목을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과 ▲자체평가 항목별 점수 적절성으로 간소화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함
 - * 자체평가 평가점수 및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소명자료 미제출·미비한 경우, 상위평가위원회가 직접 점수·등급을 조정하고, 재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단계를 폐지함
- 대국민 성과공유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아웃리치&에듀케이션 관련 목표를 성과목표에 제시하고 기관운영평가에 반영

2. 기관평가 개편사항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개편 배경

-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 기관에서 지정 해제('24.1.31)
- 자율적 책임경영이 가능하되 국가적 임무·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운영체계 마련 필요

■ 주요 추진 경과

- (제도 설계) ▲정책연구, ▲다수 현장소통*, ▲시범평가 등을 거쳐 수용성 있고 완성도 높은 기관평가 제도 설계 노력

* 출연연 릴레이 간담회 TF 등 현장간담회 지속 추진 ('24.10~'25.12)

'24.6월 ~ 12월	'25.4월	'25.5월 ~ 9월	'25. 11월
정책연구 (한국정책학회)	⇒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개정 (통합평가 체계 개편)	⇒ 6개 기관 시범평가* (본 평가 수준 점검, 개선점 발굴)	⇒ 기관평가 지침 확정 (기관평가 체계 개편)

* 표준연, 화학연, 한의학연, 건기연, KIST, KISTI 등 6개 기관

- (개편 완성) 연구성과평가기본계획('26~'30) 및 실시계획('26)을 통해 구체화하여 현장에 안내하고 개편된 평가 실시('26.4~)

■ 개편 주요 내용

- (통합평가) 종전의 이원화된 평가체계(3년단위 기관평가 + 6년단위 사업평가)를 1년 단위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
- (개방검증) 세부항목별 달성도 평가는 지양하고, 각 기관 중장기 지향점·성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가·국민의 개방형 검증 유도
- (평가지표) ▲개방·협력, ▲전략기술·기술사업화 거점 유도, ▲고난도 연구를 통한 대형 연구성과 창출 등 연구기관이 나아갈 방향 반영
 - 복잡·다수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기관 대표성과 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하여 국민 체감형 대표성과 창출에 기관 역량 집중 독려
- (실질적 환류) 평가 결과에 따른 ▲전 구성원 성과급 검토, ▲(1%)우수 연구진 상여금, 경상경비·업추비 차등 적용 등 환류 강화로 성과창출 동기부여 확대

3. 평가대상기관 현황

■ 평가대상은 총 48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표 1-1〉 평가대상기관 현황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7)	고등과학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해양수산부(3)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방위사업청(1)	국방과학연구소
우주항공청(2)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안전 위원회(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3)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제2절 평가 추진체계

1. 추진체계 요약

- (자체평가) 부처 및 연구회는 지침과 편람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달성도, 우수성 등을 평가
 - 부처 직할연구기관은 既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목표 달성도와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기관운영/연구사업을 평가
 - ※ '26년 1~3차 기관평가(기관운영평가, 연구사업평가) 수행('26.1월~'26.11월)
 - 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경영부문과 연구부문을 통합하여 평가
 - ※ '26년 1차 기관평가(통합평가) 수행('26.1월~'26.3월)
- (상위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와 항목별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점수·등급을 조정·확정



[그림 1-1] 출연연구기관 자체·상위평가 추진체계도

2. 부처 직할 연구기관 평가

- (기관운영평가) 기관의 역할·책임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기관장 임기에 따라 수립된 기관운영계획서에 대한 운영 결과를 평가
 - (계획수립) 연구기관은 기관의 역할·책임을 바탕으로 기관장 임기를 고려하여 계획수립 착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관운영계획서를 이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중간컨설팅)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 임기 중반에 컨설팅을 통한 기관운영계획서를 수정

- (자체평가) 기관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기관운영의 우수성 등을 공통영역, 자율영역, 현안 대응영역, 기관장 기관 발전 기여도로 구분하여 정량·정성평가 실시
 -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부처 단위) 및 연구기관 자체평가 항목별 점수 결과의 적절성(출연연 단위)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확정
- (연구사업평가) 연구기관별 평가 주기(3·5·6년)에 따라 연구사업(내역사업 단위) 및 정책지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추진 절차·결과·파급효과 등을 평가
- (계획수립) 연구기관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전략에 따라 3년 또는 5·6년 단위의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
 - (중간컨설팅) 환경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연구사업계획서를 수정
 - (중간점검) 연구사업평가 주기가 5·6년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연구목표 달성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
 - (자체평가) 연구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기관의 역할·책임 및 중장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역사업별 전략목표에 대한 성과 우수성 등을 정성평가 실시
 -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부처 단위) 및 연구기관 자체평가 항목별 점수 결과의 적절성(출연연 단위)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확정
 - (전략컨설팅) 연구사업평가 종료 후, 부처, 과기정통부(혁신본부), 평가위원 등 이해관계자 (전략컨설팅단)의 집단 논의·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의 차기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3.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통합평가

- (개요) 연구기관의 역할과 임무 달성 유도과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부문과 연구부문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
- (계획수립)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고려하여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경영계획서를 매년 수립
 - (합동점검) 연구경영계획서의 기본요건, 작성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자체평가) 연구회는 재정인력 전략적 관리 및 개방형 협력성과 등의 경영부문과 대표 연구성과 중심의 연구부문을 통합하여 평가
 - (상위평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의 적절성(부처 단위) 및 연구기관 자체평가 항목별 점수 결과의 적절성(출연연 단위)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확정

제3절

2026년 기관평가 주요내용

1. 2026년 1차 평가대상

■ 평가대상

- (부처 직할 연구기관) 3개 부처 소관 6개 기관(기관운영평가 2개, 연구사업평가 4개)
-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통합평가를 수행한 연구회 소관 23개 기관

〈표 1-2〉 '26년 1차 평가대상 기관 현황

평가유형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기관운영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사업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통합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 평가운영 및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선정기준) 자체평가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연구분야·기관 이해도, 전문성,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제외
- (위원규모) 평가유형에 따라 적정 규모로 구성
 - (부처 직할연) 기관운영평가는 4개의 평가부문을 합하여 8명 이상, 연구사업평가는 최소 전략목표 수의 2배수 이상 되도록 구성
 - (연구회 출연연) 연구분과단은 기관별 적정인원(3인 이상)이 담당 기관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경영분과단은 분과별 적정인원(3인 이상)이 경영성과를 검토
- (역할) 기관운영과 연구사업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결과 점검,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자체평가 수행(부처 직할연),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성과 연구성과 등에 대해 자체평가 수행(연구회 출연연)

■ 상위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기관 특성,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
 - (위원회) 위원장, 분과장, 기관전담 위원, 절차·체계 위원 등으로 구성
 - ※ 기관전담 위원은 기관별 2인 내외, 절차·체계 위원은 2인 내외로 구성
 - (분과) 출연연 분과, 직할연 분과, 절차·체계 분과 총 3개 분과로 구성
- (역할) 자체평가 적절성 종합 점검, 상위평가과정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결정 등을 통한 최종 평가결과(점수·등급)를 확정
 - (위원장) 전략회의, 총괄조정회의 등 전체 회의를 주재하여 상위평가 계획, 방향 등을 결정하고, 각 분과의 점검 결과 검토·조정
 - (분과장) 분과별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 간 이견 발생시 의견 조율
 - ※ 분과의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결과를 정리하고, 총괄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의견 공유
 - (기관전담 위원) 기관의 특성과 연구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하며,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평가의견 제시

- (절차체계 위원)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 자체평가 절차와 체계 점검을 점검하고 평가의견 제시

■ 평가수행기간

- (기관운영평가) 기관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연 3차로 나누어 실시
 - 기관장 임기만료일을 고려하여 차수별로 대상기관 선정
- (연구사업평가)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차년도에 연 1회 실시
 - 부처는 매년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3월 말까지 과기정통부(혁신본부)에 제출하며, 과기정통부(혁신본부)는 상위평가 실시
- (통합평가) 연구기간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자체·상위평가 수행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 자체평가

■ 기관운영평가 평가항목 및 주요 내용

- 공통영역(25점, 정량평가)
 - 기관이 받은 외부평가항목을 선정 후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평가
 - ※ (예시) 연구보안평가, 통합공시 점검,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승진 목표제, 종합청렴도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 자율영역(50점, 정성평가)
 - 기관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별(3~5개)로 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역할·책임(R&R) 이행기여도 등에 대해 평가
- 현안대응영역(15점, 정성평가)
 - 정책·기술 환경변화 등에 대한 대응노력·성과를 ①정책방향대응, ②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③외부환경 변화 및 외부지적사항 대응 항목으로 평가
- 기관장 기관발전 기여도(10점, 정성평가)
 - 기관장의 기관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영성과(최대 3건)를 대상으로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활동과 역할, 리더십 등을 종합하여 정성평가

- 감점 적용
 - (감점)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최대 3점), 기관 신뢰도 저해(최대 5점),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조치 미흡(최대 5점)
- (평가결과 산출) 각 항목별 점수 및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와 등급 산출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연구사업평가 평가항목 및 주요 내용

- 연구수행의 적절성(30±10점, 정성평가)
 - 전략·성과목표별 목표의 도전성, 연구수행과정의 적절성, 최종 성과와 목표·R&R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연구성과의 우수성(40점, 정성평가)
 - 논문, 저서, 특허, 개발 기술·제품, 연구행사 등 산출물(output)의 질적 우수성을 정성적으로 평가
- 연구결과 영향력(30±10, 정성평가)
 - 연구기관의 성과 중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물 및 그 외 성과물의 과학기술적, 사회 경제적, 정책적 가치로 전환되어 발생한 효과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Case Study를 정성적으로 평가
- 가·감점
 - (가점) 세계 유수의 상(노벨상, 필즈상)(최대 5점)
 - (감점)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최대 3점)
- (평가결과 산출) 전략목표별 수행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 영향력, 가감점을 종합하여 최종 점수·등급 산출

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통합평가 평가항목 및 주요 내용

- 경영부문(40점) : 기관공통관리역량(16점), 기관혁신성과(14점), 개방방·협력성과(10점)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
 - (기관공통관리역량)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보안평가, 자체감사활동심사, 종합청렴도 평가, 연구기관정보 투명성 평가
 - (기관혁신성과) 재정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기관 경영혁신 사례(1~2개)
 - (개방방·협력성과) 개방 관련 정책적 추진사항의 이행, 개방형 혁신 노력 및 성과 실적
- 연구부문(60점) : 수탁연구과제 및 기본사업평가(합계 10점), 대표연구성과(30점), 종합연구실적 (20점)의 정량·정성평가를 실시
 - (수탁연구과제 및 기본사업) 연구기관별 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예산 비중을 고려하여 연구회가 수탁연구 및 기본사업 평가항목 배점 부여
 - (대표연구성과) 대표연구성과(3건 이내)에 대해 수행과정의 적절성, 성과의 우수성 2가치 측면에서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
 - (종합연구실적) 연구기관이 제시한 성과지표의 적절성·타당성 및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을 평가
- 가·감점
 - (가점) 세계 유수의 상(노벨상, 필즈상), 정부 정책 이행 노력 및 성과 등 최대 5점
 - (감점) 건전한 평가문화 저해(최대 3점), 기관 신뢰도 저해(최대 5점),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조치 미흡(최대 5점)
- 평가점수·등급 부여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70미만
SS	S	A	B	C	D

(2) 상위평가

■ 상위평가 항목 및 점검내용

-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부처·연구회가 수립한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이 적절한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점검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연구기관 단위에서 자체평가 항목별로 도출한 평가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점검

〈표 1-3〉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점검내용	비고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의 적절성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의 적절성 - 자체평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이전 평가 결과의 반영 및 이행 체계의 적절성 등	적절/부적절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평가위원 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노력의 충실성 등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 자체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의 적절성	적절/부적절 (점수·등급 조정)

■ 상위평가 방법 및 결과 도출

- (평가방법)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항목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항목을 각 분과별로 점검
 - 절차·체계 분과는 부처·연구회의 평가절차와 체계가 점검 대상이므로 상위평가 점검 항목 단위에서 ‘적절/부적절’을 판단하고, 검토의견 작성
 - 직할연 분과와 출연연 분과는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결과가 점검대상이므로 자체평가 점수(등급)를 부여하는 과정의 세부 평가항목에 단위에서 ‘적절/부적절’을 판단하고, 검토의견 작성
- (평가결과)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와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평가항목별 적부를 판정하여 평가결과를 각각 도출
 - 평가항목이 ‘적절’인 경우, 평가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최소한의 의견 제시는 가능하며, ‘부적절’인 경우 평가의견 필수 제시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점검의 경우에는 평가항목이 ‘부적절’인 경우 의견 제시와 함께 자체평가 점수와 등급 조정 필수

〈표 1-4〉 상위평가 결과 도출(안)

평가항목	점검단위	상위평가 결과	비고
자체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상위평가 점검항목 단위에서 '적절/부적절' 도출	적절 (의견 없음/의견 제시)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가능
		부적절 (의견 제시)	의견 제시 필수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자체평가 점수부여 평가항목 단위별로 '적절/부적절' 도출	적절 (의견 없음/의견 제시)	필요한 경우 의견 제시 가능
		부적절 (의견제시+점수·등급 조정)	의견 제시, 점수·등급 조정 필수

4. 평가결과 활용

(1) 부처 직할 연구기관

▣ 평가결과는 기관 고유임무 조정 및 기관장·직원, 연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예산 등에 반영이 가능하며 기관 경영개선 등의 후속조치 시행

- (임무·기능 조정)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임무 및 기능,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가능
 - 성과가 미흡한 전략·성과목표와 관련된 사업 및 기관고유 임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조직* 등에 대한 해당기관 기능·역할 재편 검토

* 기관 고유임무, 임무체계 또는 자율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상위평가에서 연속 최하등급 시 해당 기관의 기능·역할 재편 검토
- (우수성과 발굴)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구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 (계획서 연계)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연계·활용하여 차기 계획서를 수립하고, 기관 미래발전 방향을 도모

- 평가결과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은 차기 계획서 수립 시 반영
- 연구사업평가 결과가 차기 연구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고 도전적·혁신적 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전략컨설팅 지원
- (인센티브 연계)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평가 결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연구사업 예산 및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 가능
 - 기관운영평가 결과 및 기관 사정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능력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시기와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결정
 - ※ 성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인센티브를 미지급할 수 있고, 중도 면직으로 기관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평가기관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사업평가 결과(전략목표별 평가의견 및 점수·등급)를 반영하여 주요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하되 증액·삭감 비율은 기관 사정에 따라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연도에는 전략목표별·연도별 달성 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검토 가능
 - 연구기관은 연구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결정
 - 결산잉여금에 대한 능력성과급*은 연구사업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률 차등 적용 가능
 - *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능력성과급

■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별 시정조치 이행계획 수립·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은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혁신본부)에 제출하며, 이행 여부는 차기 평가에 반영
- 기관 비전(고유임무)과 중장기계획, 조직과의 연계성·부합성, 당면 과제(주요이슈) 및 미래 발전전략 등에 대한 기관의 조치계획 수립·시행 여부를 차기 계획서 점검 및 평가에 반영

(2)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 기본사업 예산 연계

- (임무·기능 조정)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임무 및 기능,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 (차년도 예산 반영) 연구기관 기본사업 예산 심의시 당해연도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편성

■ 전 구성원 인센티브 연계 검토

- (전구성원 인센티브 연계) 평가 등급 A 이상 획득한 기관의 전 직원 대상 성과급 부여
- (우수 연구진 상여금) 기관별 성과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를 연구직 정원의 1% 이내 선정, 구성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액의 20배내 지급
- (경상경비·업무추진비) 평가 등급에 따라 경상경비 $\pm 0.5\%p$ 내외 조정
 - (우수*기관) 차년도 경상경비 증가율을 기준율 대비 $0.5\%p$ 증액
 - * 평가 등급 'S' 이상 기관
 - (미흡*기관) 차년도 경상경비 증가율을 기준율 대비 $0.5\%p$ 감액 + 당해연도 업무추진비 5% 이내 감액
 - * 평가 등급 'C' 이하 기관
- (우수기관 주요사업비 증액) 평가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혁신도전형 씨앗과제'를 신설 검토
- (기관장 성과연봉) 연구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지급에 활용 가능
 - ※ 성과가 극히 불량한 기관의 경우 기관장 성과연봉을 미지급할 수 있음
 - ※ 평가 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B'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연봉 지급

■ (그 외) 'D'등급 기관은 개선계획서 제출 등

■ 통합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 수립·시행

5. 기관평가 추진일정

〈표 1-5〉 '26년 1차 기관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성과평가실시계획, 기관평가 지침 부처 통보	~'25.11월말	
기관평가 추진계획 마련	~'25.12월말	
출연연 실적보고서 제출	~'25.12월말(직할연) / ~'26.1월말(출연연)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기관 실적보고서 자체평가 수행기관에 제출
자체평가 수행	'26.1월~3월(직할연) / '26.2월~3월(출연연)	• 부처 직할연은 기관운영/연구사업 평가 • 연구회 출연연은 통합평가 수행
자체평가보고서 접수	'26.4.3.(금)	
상위평가위원회 서면검토	4.6.(월)~4.14.(월)	• 평가자료와 의견서 양식 발송 (전자파일, 인쇄본)
상위평가 전략회의	4.9.(목)	• 상위평가위원 대상 자체·상위평가 제도, 방식 등 안내 • 자체평가 결과 발표 • 직할연/출연연 분리하여 운영
상위평가위원회 점검회의	4.14.(화)~4.16.(목)	• 서면검토 결과 토론 • 상위평가 의견(안) 마련
상위평가 의견(안) 부처 통보	4.20.(월)	
부처 소명자료 접수	4.23.(목)	
소명자료 검토	4.24.(금)~4.27.(월)	• 부처 소명자료 서면 검토
상위평가 총괄조정 회의	4.30.(목)	• 자체평가 핵심 이슈 사항 중심 질의·응답 • 기관별 점수·등급 조정 결과 토론 • 상위평가 결과 확정
상위평가 결과 부처 통보	5.14.(목)	

PART 02

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평가 절차·체계의 적절성



본 장은 각 부처, 연구회가 작성한 자체평가편람과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 내용을 포함

제1절 기관운영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평가개요

■ 목적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 과기정통부 소속 직할연구기관별 역할·책임(Role & Responsibility, R&R) 및 연구 목표를 고려한 연구개발 전주기 평가로 기관의 연구 역량 제고

■ 평가방향

- (중장기 연구 활성화)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평가와 기관 운영평가를 분리하고 기관장 임기(3·4·5년)와 연동하여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도전적 연구 촉진)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몰입할 수 있도록 공통지표는 외부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등 최소화하여 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목표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은 확대
- (기관 발전방향 제시) 기관운영·연구사업에 대한 전주기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수준을 진단하고 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발전 유도

■ 평가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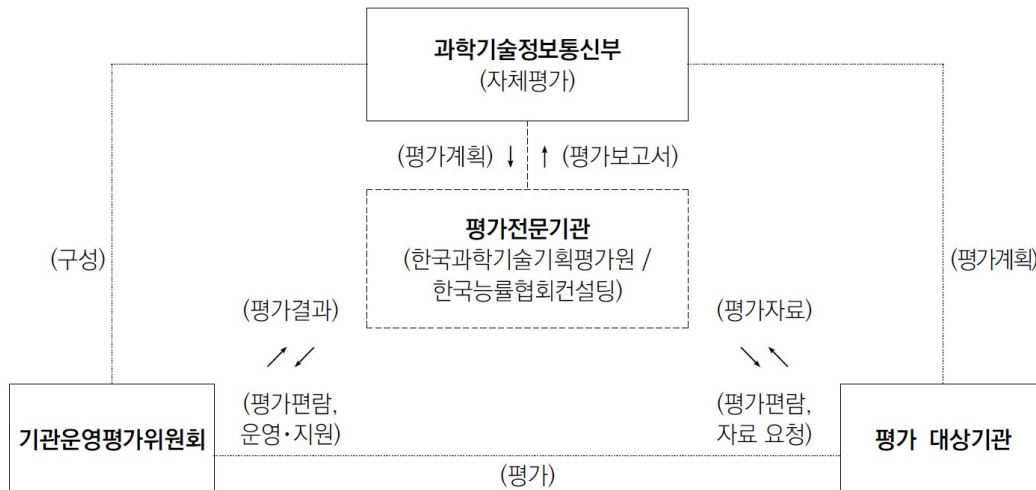
〈표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6년 1차 기관운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기관장	기관장 임기
기관운영평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배태민	'23.8.16.~'26.8.15

(2)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는 연차별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관평가 전문성이 높은 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운영평가 추진
- 평가전문기관은 세부계획에 따라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편람을 도출하여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 실시
- 기관운영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며, 평가 대상 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
- 평가전문기관은 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혁신본부에 제출



[그림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3)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상위평가)의 평가 정책(성과평가 실시계획, 기관평가 지침)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기준이 담긴 자체평가 추진계획('26.1월) 및 평가편람 마련('26.3월)
- 정부, 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등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인을 도출하여 2026년도 자체평가 세부계획 수립과 평가 대상기관 설명회를 통한 평가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추진
- 상위평가 평가기준 및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기관평가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적극 반영

■ 자체평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 평가의 일관성·객관성을 위하여 기존 3개 유형별로 구성·운영하던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구성·통합 운영('22.9월~)
- 산·학·연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7인 내외의 상설 독립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
- 자체평가위원장 선정, 자체평가위원 후보 심의, 평가위원 중도 사퇴 및 평가 분야 확대 등에 따른 평가위원 총원 결정 등 역할 수행
- 기관별 특성 및 성과목표체계를 고려하여 평가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이전 평가 결과 이행 체계 및 반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부처 및 평가 전문기관이 이행계획 수립 후 이행하며, 이행내역은 지속 점검 및 관리
- (자체평가 지적사항)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점검(전략컨설팅), 중간컨설팅,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 등 평가 단계별 자체평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행 계획 수립 지원 및 주요 평가 추진시기별 점검 실시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기관별 특성 및 목표체계를 고려하여 평가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구성

- 위원장은 평가 대상기관 해당 유형*의 자체평가위원장이 맡되, 평가위원은 평가 시마다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분야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구성

* 연구개발형(5개 기관), 교육·인력양성형(5개 기관), 지원형(7개 기관)

- (평가위원장) 평가의 객관성·책임성·연속성 강화를 위하여 유형별 자체평가위원장은 해당 유형에 속한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며, 임기제로 운영하여 상설 참여 가능(임기 2년, 연임 가능)

- (평가위원) 기관의 공공 임무, 역할과 책임(R&R), 해당 연구 분야 및 영역·성과목표와 직결되어 있는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구성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경우, 위원장(1인), 종합분석 위원(2인), 영역별 평가위원(10인) 총 13인으로 구성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임무(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R&R(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교육, 경력 성장 기회 제공, 과학기술인재 대상 조사연구·정책지원, 과학기술인 소통·협력·교류 확대) 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고, 각 평가영역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평가위원으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평가위원제·병행평가제·평가실명제 적용

- (책임평가위원제) 이전 점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 기관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평가의 연속성·책임성·전문성 강화

- (병행평가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최소 2인 이상의 병행평가 실시(정·정 체계)

- (평가실명제)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 실시

- ‘평가항목(영역, 성과목표)별 평가 → 영역간 전체 토론을 통한 위원회 총괄 조정·통합 → 평가등급 확정’이라는 평가위원회 운영 원칙 확립

- 평가위원장 총괄·조정 하에 위원별 전문분야 점검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
 - (평가위원장) 평가위원회 총괄·조정, 기관별 총평 작성
 - (평가위원) 항목별 평가 및 평가의견 작성
 - (종합분석 위원)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후보자 위촉 전 모든 후보자에 대해 NTIS 시스템을 통하여 제척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
-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저해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 평가전문기관이 연락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기관 간 소통 기회 제공 등 의사소통 채널 적극 운영
- 기관 추가자료 작성 부담 경감, 평가 전 평가 대상기관과 사전 소통노력 강화 등 평가부담 경감 노력과 체계적인 소명의견 검토 절차 제공,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등 소명절차 운영의 적절성 확보

■ 평가위원 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평가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외부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단 추가 확보
 - ※ 2025년에 평가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여성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직할연 기술분야에 부합하는 여성 평가위원 후보 37인 추가 확보
- 평가전문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여 평가결과 도출의 완성도를 제고
- 전략회의에서 평가 대상기관 출신 OB(기관퇴직자) 인터뷰를 추진하여 기관의 특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평가위원의 기관 이해도 제고

(5) 상위평가 점검결과

■ 최종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

■ 종합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 편람이 적절한 시기에 마련되어 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고,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평가계획 수립 시기의 적시성, 상위평가 지침 변경사항의 충실한 반영, 다층적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이전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이행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이해관계자 및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음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단계 절차(NTIS 제척 확인, 청렴서약서, 실명제 등)를 활용함
 - 다만, 자체평가위원회의 교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사업화·창업·경제성장 지원 등 다각화된 기관 역할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풀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원자력안전위원회

(1) 평가개요

■ 목적

- 기관장 취임 시 기관장 경영철학과 기관의 R&R을 바탕으로 수립한 기관운영계획에 대하여 기관장 임기 종료 전 해당 계획의 달성 성과의 우수성 등 기관운영 결과를 평가

■ 평가방향

- (중장기 연구 활성화) 기관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평가와 기관운영평가를 분리하고, 기관장 임기(3·4·5)와 연동하여 기관운영계획서 작성 및 성과평가 실시
- (도전적 연구 촉진)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도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 실시
- (기관의 책임성·신뢰도 제고)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항목들을 개편하고,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체계를 개선

■ 평가대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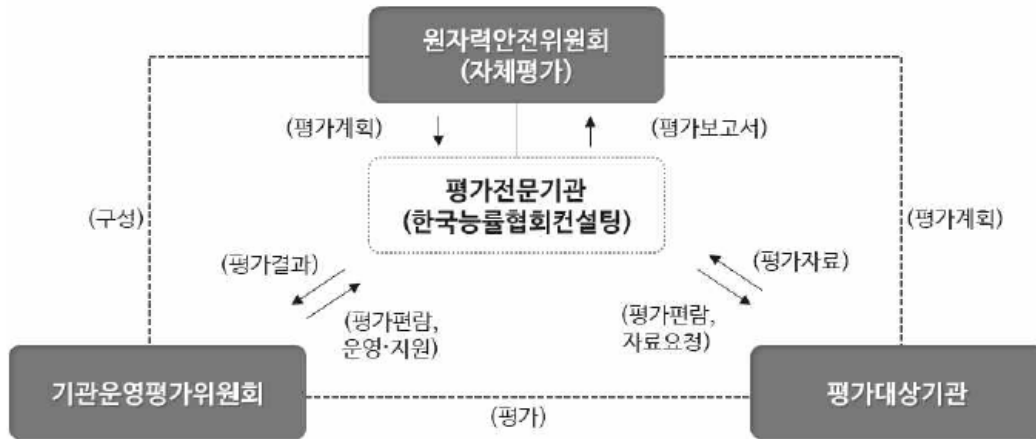
〈표 2-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6년 1차 기관운영평가 대상 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기관장	기관장 임기
기관운영평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나영	'23.9.11.~'26.9.10

(2)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차별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관평가 전문성이 높은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운영평가 추진
-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 실시
- 기관운영평가위원회는 사전에 마련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출하며,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



[그림 2-2]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운영평가 추진체계

(3)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체계

● 평가계획 수립 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상위평가)의 평가정책 및 평가지침 확정 후 이를 반영하여 평가대상기관 특성을 고려한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과 평가편람 확정·통보
- 원안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25.10월) 및 「2026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운영평가 지침」('25.11월)을 바탕으로 원안위 제도 개선사항 발굴 결과와 평가대상 특성을 반영하여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26.1월)

● 평가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 노력 등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과 평가 시 고려해야 할 평가대상기관 특성을 발굴 및 반영
- 지침, 편람 수립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검토·논의하여 2026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함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수립

- 상위평가 지침 준수 여부
 - 상위평가(과기정통부 혁신본부) 평가기준 및 지침 등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2026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 및 지침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 자체평가위원 제척 기준 완화, 평가결과 환류강화, 기관운영평가 가감점 항목 개편, 과학문화 항목 신설, 소규모 기관평가 간소화 폐지 등 변경사항 반영
- 자체평가 추진계획 및 편람 마련
 - 상위평가 지침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의 특성에 따른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 함으로써 평가대상기관의 R&R 이행력과 평가결과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평가편람 마련
 - 평가대상 평가대상기관이 평가준비 및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한 평가편람(기관운영) 마련

■ 평가조치 이행·관리체계

- 평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시행
 - (자체) 기관운영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기관운영평가 등 평가대상기관의 평가단계별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현황)에 대한 적절성 검토 실시
 - (상위) 평가전문기관이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내역을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 하여 평가편람, 제도개선 등에 반영
-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관리
 - 평가전문기관은 기관운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실시하도록 하며, 차기 계획서 점검 시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를 점검
 - 평가 시 직전 평가에 대한 이행내역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평가 결과 도출 후에는 이행내역 적정성 검토 및 계획서 점검 시 성과목표별 평가 결과반영 추적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선정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 분야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장)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 자체평가위원(장) 선정위원회(장)의 자체평가위원(장)으로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
 - ※ 분야별 자체평가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담당 분야별 자체평가위원장과 자체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장 추천) 출연(연) 정책 및 기관평가에 대한 이해도, 연구현장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하기관의 특성에 따른 분야별 자체평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임명
 - (평가위원 선정) 기관별 특성 및 성과목표체계를 고려하여 평가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자체평가위원회 공정성 확보 장치 마련 등
 - 평가위원(장) 전문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격기준과 평가대상기관과의 이해관계 형성 및 편파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척기준을 명확히 설정·운영
 -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저해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기관별 특성 및 성과목표 체계를 고려하여 평가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위원장은 평가대상기관 해당 분야(원자력 통제 분야)의 자체평가위원장이 맡되, 평가위원은 평가 시마다 대상기관의 성과목표·영역 분야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구성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관운영평가위원회는 총 15인(위원장 1인, 종합분석 소위 2인, 기관운영 소위 12인)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 평가위원 전문분야별 담당 영역을 설정하는 등 평가위원회 내의 역할·권한 분담을 명확히 하고 평가기관과 위원회 간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평가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
- 평가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책임평가위원회·병행평가제·평가 실명제 실시
- 평가위원장 총괄·조정 하에 영역 별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평가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분담된 성과목표 평가 실시
- 평가전문기관 내 전담조직을 통해 평가과정에 필요한 기관 일반현황 및 성과 관련 기초자료, 대내외 지적사항 및 이행내역 자료 등을 적시 제공
- 평가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해 통합·상시 문의할 수 있도록 평가전문기관이 연락 창구 역할 수행

-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의 충실성

- 자체평가위원 후보단(풀) 구성·운영

- 기관 R&R 및 성과목표를 고려한 전문분야, 자격요건, 제척기준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후보단(Pool) 총 85명 내외로 확대·구성(75명 → 85명)
- 향후 2년 이내 평가 수요에 집중한 맞춤형 전문가를 자체평가위원 후보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 활용도 제고 및 책임평가제 강화 가능
- 후보단에 속하는 전문가는 평가 대상기관, 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기관별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후보단 전문가를 우선 고려)

- 평가위원 전문성 확보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전문성을 ‘평가대상기관 이해도’와 ‘기관평가 전문성’으로 정의하고,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시 14인 중 11인을 책임평가위원(직전평가 및 계획서 점검 경험 보유자)이면서 제척·기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 직전평가 참여 평가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기관 R&R, 성과목표 및 평가 지표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평가의 연속성·일관성 및 심층성 확보

- 이해관계 편중 및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척·기피 기준 사전 검증 후, 전문성·객관성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들을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위촉
- 평가위원 대상 첫 전략회의 시 평가기준, 평가지표 해설, 평가방법 및 판정 기준을 포함한 자료 제공 및 체계적인 설명 실시
- 평가지표 해석 편차 최소화 및 평가 적용 기준에 대한 공통 이해 확보를 통해 평가위원 간 판단 일관성 및 평가 신뢰성 제고 유도
- 전략회의를 통해 평가 방향,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성 기반 의사결정 강화

(5) 상위평가 점검결과

■ 최종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

■ 종합의견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상위평가 지침의 충실한 반영, 원자력 규제기관 특성을 고려한 제척 기준의 자체적 강화, 이전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이행 관리, 갖추어져 있음
- 현안점검 회의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의 의견수렴 통로를 확보하고 자체평가와 상위 평가의 권고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 있음
- 자체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위원 선정, 분야별 평가위원 Pool 구성, 책임평가 위원제 활용 등 객관성과 전문성, 평가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함
- 평가위원장 재위촉 과정의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응모자가 1인임에 따라 단독 평가가 진행된 점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경쟁적 선정 과정의 실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원자력 통제 분야의 전문가 풀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지만, 향후 위원장 선임 시 후보자 풀 확대를 위한 사전 노력(모집 기간 연장, 추천 경로 다변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사업평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평가개요

■ 목적

- 과기정통부 직할연구기관의 공공 임무 및 역할·책임(Role & Responsibility, R&R) 중심으로 작성된 연구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연구사업별(전략목표·대과제) 연구역량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방향

- (중장기 연구 활성화)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평가와 기관 운영평가를 분리하고 기관장 임기(3·4·5년)와 관계없이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평가 주기를 차별화
- (도전적 연구 촉진)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도 정량평가를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
- (성과의 효과성 제고) 연구성과의 수준과 효과 제고를 위해 연구결과의 영향력에 대한 정성평가
- (사업의 책임성 강화) 연구부문은 출연(연)의 예산 심의 단위인 주요사업 내역사업(대과제) 단위로 전략목표 수립·평가

■ 평가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3개 기관

〈표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6년 1차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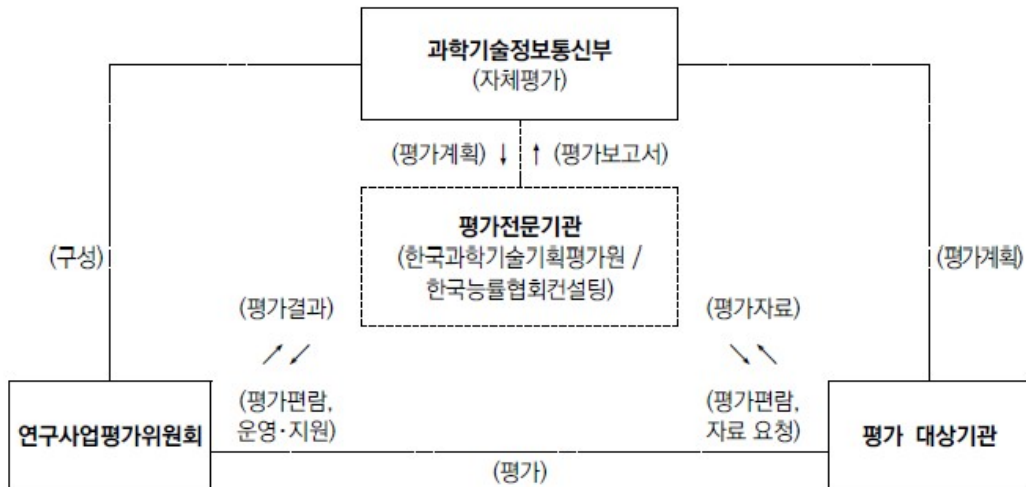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주기	평가대상기간
연구사업평가	한국과학기술원	5년	'21.1.~'25.12
	고등과학원	6년	'20.1.~'25.12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3년	'23.8.~'26.8

※ 평가주기 3년인 기관은 기관운영평가와 동시 실시

(2)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과기정통부는 연차별 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관평가 전문성이 높은 평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사업평가 추진
- 평가전문기관은 세부계획에 따라 구체적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편람을 도출하여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운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 실시
- 연구사업평가위원회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며, 평가 대상 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
- 평가전문기관은 기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혁신본부에 제출



[그림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사업평가 추진체계

(3)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

-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상위평가)의 평가 정책(성과평가 실시계획, 기관평가 지침)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기준이 담긴 자체평가 추진계획('26.1월) 및 평가편람 마련('26.3월)

- 정부, 평가대상기관, 평가위원 등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인을 도출하여 2026년도 자체평가 세부계획 수립과 평가 대상기관 설명회를 통한 평가제도 안내 및 의견수렴 추진
- 상위평가 평가기준 및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기관평가 지침 주요 변경 사항을 적극 반영

■ 자체평가 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 평가의 일관성·객관성을 위하여 기존 3개 유형별로 구성·운영하던 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구성·통합 운영('22.9월~)
- 산·학·연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7인 내외의 상설 독립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
- 자체평가위원장 선정, 자체평가위원 후보 심의, 평가위원 중도 사퇴 및 평가 분야 확대 등에 따른 평가위원 충원 결정 등 역할 수행
- 기관별 특성 및 성과목표체계를 고려하여 평가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 이전 평가 결과 이행 체계 및 반영

- (상위평가 지적사항)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근거하여 부처 및 평가 전문기관이 이행계획 수립 후 이행하며, 이행내역은 지속 점검 및 관리
- (자체평가 지적사항) 기관운영·연구사업계획서 점검(전략컨설팅), 중간컨설팅, 기관 운영·연구사업평가 등 평가 단계별 자체평가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연구기관의 이행 계획 수립 지원 및 주요 평가 추진시기별 점검 실시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기관별 특성 및 목표체계를 고려하여 평가 시기마다 선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구성

- 위원장은 평가 대상기관 해당 유형*의 자체평가위원장이 맡되, 평가위원은 평가 시마다 대상기관의 성과목표 분야에 부합하는 전문가로 구성
 - * 연구개발형(5개 기관), 교육·인력양성형(5개 기관), 지원형(7개 기관)
- (평가위원장) 평가의 객관성·책임성·연속성 강화를 위하여 유형별 자체평가위원장은 해당 유형에 속한 평가 대상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며, 임기제로 운영하여 상설 참여 가능(임기 2년, 연임가능)
- (평가위원) 기관의 공공 임무, 역할과 책임(R&R), 해당 연구 분야 및 영역·성과목표와 직결되어 있는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구성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사업평가위원회 구성
 - (고등과학원) 위원장(1인), 종합분석 위원(2인), 영역별 평가위원(9인) 총 12인으로 구성하여 그룹별(수학·물리·계산과학) 분과 구성을 통해 세부 연구분야별 심층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
 - (한국과학기술원) 위원장(1인), 종합분석 위원(2인), 전략목표별 평가위원(11인) 총 14인으로 하여 전략목표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전략목표 2는 다양한 과학 분야를 고려해 5인의 평가위원을 배치하여 다학제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
 - (국가연구개발인력개발원) 위원장(1인), 종합분석 위원(2인), 전략목표별 평가위원(6인) 총 9인으로 하여 전략목표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으며, 과학기술 인재양성, 디지털·AI 기반 학습 등 각 영역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분야 간 균형성과 연계성을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의 연속성·전문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책임평가위원제·병행평가제·평가실명제 적용
 - (책임평가위원제) 이전 점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시켜 기관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평가의 연속성·책임성·전문성 강화
 - (병행평가제)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최소 2인 이상의 병행평가 실시(정·정 체계)
 - (평가실명제) 평가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실명제 실시

- ‘평가항목(영역, 성과목표)별 평가 → 영역간 전체 토론을 통한 위원회 총괄 조정·통합 → 평가등급 확정’이라는 평가위원회 운영 원칙 확립
- 평가위원장 총괄·조정 하에 위원별 전문분야 점검을 거쳐 평가결과 확정
 - (평가위원장) 평가위원회 총괄·조정, 기관별 총평 작성
 - (평가위원) 항목별 평가 및 평가의견 작성
 - (종합분석 위원)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 후보자 위촉 전 모든 후보자에 대해 NTIS 시스템을 통하여 제척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위촉하여 공정성을 확보
- 공정한 평가문화 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기관까지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저해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 평가전문기관이 연락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위원과 평가 대상기관 간 소통 기회 제공 등 의사소통 채널 적극 운영
- 기관 추가자료 작성 부담 경감, 평가 전 평가 대상기관과 사전 소통노력 강화 등 평가부담 경감 노력과 체계적인 소명의견 검토 절차 제공, 충분한 소명기간 부여 등 소명절차 운영의 적절성 확보

■ 평가위원 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평가의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외부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 후보단 추가 확보
 - ※ 2025년에 평가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여성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직할연 기술분야에 부합하는 여성 평가위원 후보 37인 추가 확보
- 평가전문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여 평가결과 도출의 완성도를 제고
- 전략회의에서 평가 대상기관 출신 OB(기관퇴직자) 인터뷰를 추진하여 기관의 특성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평가위원의 기관 이해도 제고

-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영향력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야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 활용(필요시)
 - 심층적·입체적 성과분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전문적 식견을 활용하여 주요 연구성과(논문, 특허 등)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실시
 - 연구사업 분야 중 협소한 국내 연구자 Pool 극복, 연구그룹의 국제적 위상 확인, 과학 기술적 의의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평가의 글로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문단 운영 시 해외 석학 동료평가 실시
 - 자문단 분석 의견은 자체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5) 상위평가 점검결과

■ 최종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

■ 종합의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 편람이 적절한 시기에 마련되어 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였고, 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평가계획 수립 시기의 적시성, 상위평가 지침 변경사항의 충실한 반영, 다층적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이전 상위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 이행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이해관계자 및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적절히 수립하고 있음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단계 절차(NTIS 제척 확인, 청렴서약서, 실명제 등)를 활용함
 - 다만, 자체평가위원회가 교수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사업화·창업·경제성장 지원 등 다각화된 기관 역할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풀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고등과학원 평가위원회의 경우, 산·학·연 구성에서 연구계 위원이 부재한 점은 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평가 시각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분야 출연(연) 소속 전문가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

(1) 평가개요

■ 목적

- 해양수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및 기관운영성과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경영 효율화 및 성과 향상 도모
- 연구기관의 공공 임무 및 역할·책임(R&R)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등과 연계하여 작성된 연구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도전성·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별(전략목표 등)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 기본방향

- 연구기관이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장 임기와 관계없이 연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사업평가 주기를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없이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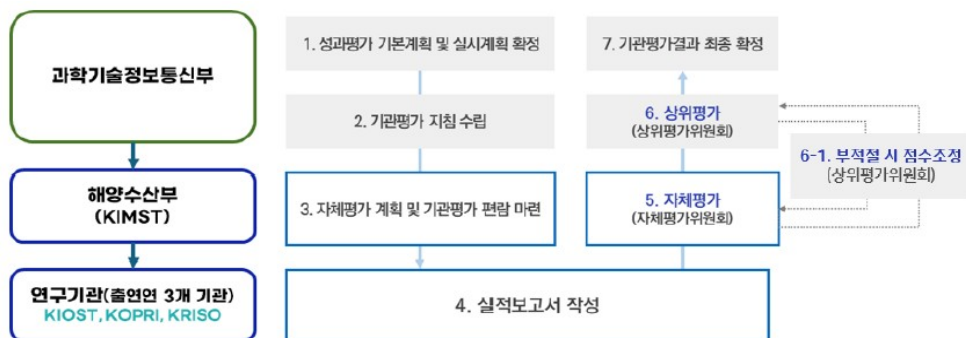
■ 평가대상

- 해양수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1개 기관

〈표 2-4〉 해양수산부 소관 '26년 1차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

평가유형	기관명	평가주기	평가대상기간
연구사업평가	극지연구소	6년	'20.1.~ '25.12

(2) 추진체계



[그림 2-4] 해양수산부 연구사업평가 추진체계

(3)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

■ 평가계획 수립 체계

-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자체평가 계획 수립
 - 합리적인 평가편람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반영('26.1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 및 해양수산부 통합편람 준용한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추진 계획 수립('26.1월)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평가편람(안)과 추진계획 수립 안내
 - 연구기관 기관평가 담당 부처 및 전문기관, 연구기관 간 기관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의 등 의견수렴 상시 가동
 - 정부 지침, 기존 평가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평가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해양수산부 기관평가 통합편람 초안 마련
 - 부처, 평가대상기관,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부처, 평가대상 기관 등 협의를 통해 평가 및 점검 추진계획 수립하여 안내

■ 평가계획 및 평가편람 마련

- 자체평가 정부 지침 준수 및 시행 결과
 - 2026년 제1차 극지연구소 연구사업평가 계획 및 편람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 계획('25.10월, 국과심 운영위)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관평가 지침('25.11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수립
-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통합편람 및 평가 계획 수립
 - 2026년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기관 연구사업평가 추진을 위해 부처,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 계획 수립 및 편람 마련

■ 평가결과 이행체계

-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지적사항 관리체계와 자체평가 수행 주체의 상위평가 지적사항 이행체계를 구분하여 운영
-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 실시 전 시행한 이전평가에 대한 지적사항 검토 및 계획 수립·반영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해수부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사업계획서/기관운영계획서 점검 및 연구사업평가/기관 운영평가 위원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는 전문성, 공정성,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 균형 있게 구성
- 2026년 제1차 극지연구소 연구사업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사업평가 추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는 극지연구소의 유형(기초미래선도형)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를 형평성 있게 구성
- 자체평가 운영은 당초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자문 사안 발생시 추가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 자체평가보고서는 전문가 및 「KIMST 국민참여혁신단」 4인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 관점에서의 보고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서면 검토 추진함

■ 자체평가위원 전문성 제고 활동

- 사전 워크숍을 통해 평가 관련 제공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안내('26.1.23)
- 연구사업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워크숍 시 교육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 자체평가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기관의 평가 애로·건의사항 청취, 추진계획 및 편람 반영
- 질의응답, 실적확인 등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해 사전에 질의 및 요청자료 목록을 연구 기관에 선 제공 후 현장평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원스톱 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의 평가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성과확산실을 통한 창구 일원화로 평가위원 및 연구기관의 요청사항 등 자료·정보 적시 제공
- 연구사업평가 결과(안)를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5) 상위평가 점검결과

■ 최종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

■ 종합의견

- 해양수산부는 상위평가 및 자체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당해연도 편람 마련에 있어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등 편람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해양수산 R&D전문기관인 KIMST에 평가수행을 위탁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상위평가 지침을 충실하고 반영하고 있음
 - 평가기관 및 피평가기관과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자체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독립적 선정위원회 운영, 다단계 공정성 확보 절차,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자체평가위원 선정위원회(4기)의 구성이 산학연에 골고루 배분되게 하고 여성과 신진연구자의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함
 - 다만, 일부 전략목표의 경우, 2인의 자체평가위원이 모두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관점의 객관성 및 다양성 측면에서 전략목표 내 전문가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3절 통합평가

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 평가개요

■ 목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유도

■ 평가대상

- (대상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
 - (대상기간) 2025. 1. 1 ~ 2025. 12. 31 (1개년)
- ※ 사업의 착수시점, 자원의 투입 시점 등과 무관하게 평가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 인정

(2) 추진체계

■ 평가 추진체계

- 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실시 → 상위평가 실시 → 환류



[그림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통합평가 기본 체계

(3) 자체평가 실시계획(편람) 수립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체계

- 평가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평가제도 설계부터 검증, 개선, 확산까지 전 과정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 출연(연) 기관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평가 개편 TF」를 구성·운영하여 평가체계 및 주요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관평가 지침(안) 마련
 - 출연(연) 구성원 대상 릴레이 간담회, 전 구성원 설문조사(온라인)를 통해 기관평가 개편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수용성 제고
 - 신규 평가제도 도입('26년)에 앞서 실제 본 평가 수준의 시범평가(6개 기관)를 실시하여 기관평가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통합평가 체계의 기반 및 실효성 확보
 - 출연(연) 연구·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6년 기관평가 추진계획(평가 편람)을 수립하고, 대상·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직전 상위평가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 반영

- 상위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상위평가 의견 반영·이행 체계' 개선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 및 평가제도 고도화 추진
 - (평가의견) 상위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자체평가보고서 내 평가 의견 수정·보완
 - (평가절차) 상위평가 의견을 반영한 평가 절차·체계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평가 시 개선 사항 이행

(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체계

- 평가대상기관의 연구분야, 기관의 역할·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연구개발 및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 위원회 구성

- 공모 및 추천 등 방식 등을 통해 신규 전문가를 발굴하여 다양성과 전문성 보완
- 평가위원은 연구회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법정 자문기구인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 평가위원 선정 절차 : (1단계) 후보풀 구성을 위한 출연연 연구분야 조사 → (2단계) 공모 및 추천 등을 통한 후보풀 확대 → (3단계) 기평위에서 평가위원 후보자(분과별 5배수 이내) 선정 → (4단계) 후보자 대상 제외기준 등 확인·검증 후 평가위원 위촉
- 평가단은 총 70명(평가단장 1명 제외) 규모로 산업계 11명(15.7%), 학계 29명(42%), 연구계 30명(42.9%)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부문은 출연(연) 연구 분야 및 특성을 고려하여 5개* 분과로, 경영부문은 기관 간 공통성이 높은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분과로 운영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평가 수행
 - * 국토·인프라, 에너지·환경, ICT·융합, 기계·소재, 생명·의료
 - ** 경영1(국토·인프라, 에너지·환경), 경영2(기계·소재, 생명·의료) 경영3(ICT·융합)
- 평가단장, 분과장, 평가위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평가 수행부터 의견 조율 및 결과 검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 연구분과는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수준, 기술 확산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하고, 경영분과는 조직·예산관리 및 경영 전략 등을 중점 점검

■ 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절차·체계

- 분과 단위 원팀(one-team) 및 기관(분야)별 전담위원 체계의 평가단 운영으로 평가의 일관성·균형성 및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통합평가가 지향하는 ‘국민체감형 대표 성과 중심 평가’를 구현
 - 분과 내 동일 위원이 복수 기관(연구 5개 이내, 경영 9개 이내)을 평가하여 평가 기준의 일관성 확보하고, 평가위원 간 상호 논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다각적 평가 실시
 - 기관(분야)별 전담위원을 지정·운영하여 기관 및 연구분야의 특성과 주요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근거 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의 논리성 강화
- 평가위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회의 운영을 통해 평가제도·방법을 공유하고, 출연(연) 소속 평가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관 운영 특성과 연구 수행 환경 등 현장 생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

(5) 상위평가 점검결과

■ 최종결과 : 자체평가 절차·체계 “적절”

■ 종합의견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26년 기관평가의 자체 평가 절차·체계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립·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이원화 평가체계를 통합평가로 전면 개편하는 제도 전환기에 자체평가 실시에 앞서 본 평가수준의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사전 검증하고 실효성 있는 자체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함
 - 대상·단계별 다층적 의견수렴(TF 운영, 릴레이 간담회 6회, 전 구성원 설문조사, 권역별 설명회 5회 등 총 15건 이상), 이사회 의결을 통한 평가편람 확정 등 체계적인 추진 과정을 거친 점은 높이 평가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정 자문기구인 기획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향후 통합평가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 검토를 권고함
 - 기획평가위원이 평가단장·분과장을 역임하고 자체평가위원 선정에도 관여하는 현행 구조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자체평가의 독립성에 대한 외부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의 독립적 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획평가위원의 불참으로 2인의 공동분과장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공동분과장 체제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평가위원 외부에서 분과장을 보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PART 03

기관별 평가결과의 적절성



기관별 평가결과의 적절성



본 장은 각 부처, 연구회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제1절 기관운영평가

1. 평가결과 요약

▣ (기관운영평가) 우수 1개 기관, 보통 1개 기관

연구기관	평가항목					종합점수	평가등급
	공통	자율	현안대응	기관장 기여도	감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4.44	40.25	9.90	8.50	-	83.09	우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8.66	40.10	9.90	8.50	-	75.16	보통

※ 등급기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매우미흡(60점미만)

2. 기관별 주요 성과 및 평가내용

(1)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자율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성과목표①) 국내 최고 과기인재양성 기관으로서의 임무·역할(R&R) 재정립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성과목표②) 디지털 전환 시대 직원 역량강화와 의욕고취로 기관 미래 경쟁력 확보, (성과목표③) 기관 운영의 내실화 확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 전략 수립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양호하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성과관리 체계의 정교성, ESG 및 재정전략의 구조적 완성도 등 실행의 질적 수준과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필요 → 2025년 기준 CDP 기반 인사배치율 60%를 달성하는 질적 성장을 보임
	상위 평가	• 희망부서 배치율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 희망부서 1~2순위 배치율 60%기준이며, 기관 정원 제약, 직무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 등 현실적 제약 하에서 CDP와 실제 인사배치의 연계 수준 등 실질적 성과를 고려함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소명 검토	- 배치율 60%의 우수성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의신청 내용 인정 - 다만, 평가체계상 '우수성 판정 기준치'의 사전 설정과 외부 비교 근거 확보 등 평가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함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40.25/50)
현안 대응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대표성과) 이공계 해외 연구인력 국내 정착 기반구축 사업 및 지역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등의 추진 → 감사 지적사항 100% 조치 등 제도 준수 및 사후 대응 노력과 성과는 적절하나, 스마트워크센터 활용 저하와 AI 대응이 미흡 → 인권경영 실태조사 응답률이 34%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효성 측면의 보완 필요	
	상위 평가	중간 점검	인권경영 실태조사 응답률 문제를 지적하고는 있음에도 점수 상승 추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결과값 반영에 유의할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인권경영 실태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권경영 추진체계, 제도 운영 등 기관의 전반적인 인권경영 활동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소명 검토	인권경영 실태조사결과 외에도 타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9.90/15)
기관장 발전 기여도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대표성과) R&R 기반의 정책기능을 확장하여 기관재정의 안정성, 건전성 확보, 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기관의 활력(Vitality)을 제고 → 기관 전략 방향 설정과 제도 기반 구축 측면에서 기관장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며, 제도의 조직 전반으로의 실행력 지속 확산 노력 필요 → 교육 대상을 기존 출연(연) 중심에서 전체 과학기술인으로 확대(수요기반 신규 교육과정 개설 등)하여 고객의 외연을 크게 확장	
	상위 평가	중간 점검	기관장 핵심 기여사항이 이미 관련법에서 해당 근거는 마련된 것인지, 기관장이 완전히 새롭게 추진한 것인지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는지 확인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 위에서 기관장이 중장기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장·구체화, 성과 창출한 점에 주목하여 평가함
		소명 검토	기관장 기여 식별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성과 입증의 정량성 부족하며,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가 있어 지표보강 등의 평가 인프라 고도가 필요함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50/10)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자율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성과목표①) 규제 활용 중심의 연구관리체계 강화, (성과목표②) 핵비확산·핵안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주기 인적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성과목표③) 연구몰입을 위한 안정적환경 개선, (성과목표④)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윤리 문화 정착 → 다양한 시스템 인증을 통한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과 조직·인력 및 업무 환경 구축, 제도적 틀 마련 등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효과성 분석과 성과 검증, 인증·제도 성과의 내재화 노력 등은 개선이 필요함 → 조직을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하여 정책·연구·교육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원자력 시설 규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 효율화는 긍정적임
	상위 평가	• 조직개편의 실질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국(大局) 체제로의 조직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상반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자체평가 부적절)
	소명	•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6명 증원을 확보하고, 재정당국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맞춰 조직을 대국 체제로 개편한 점을 인정함
	소명 검토	• 조직개편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동일 사안(조직개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병행하고 있어 평가 논리의 정합성이 다소 불명확하게 인식될 소지가 있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40.10/50)
현안 대응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업무효율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 개선, 청년고용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연구성과 관리체계 강화, 안전관리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 이행,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외부환경 변화 대응 관련 전반적인 제도 준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외부지적사항 등 체계적인 현안 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로 실효성 검증과 후속 관리가 필요하며, 외부 지적 사항과 정책환경 변화 대응 측면에서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9.90/15)
기관장 발전 기여도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신규 원전 규제 수요 증가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인력 기반 강화, 규범준수 및 품질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 원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기반을 구축하고 기관장 주도로 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춰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조직·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분석 및 피드백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혁신규제실 신설, 중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인력 확보, ISO 37301 인증 획득 등은 가시적인 성과로 인정되나, 일부 영역에서는 제도 도입과 성과 간 연계성 및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환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50/10)

제2절 연구사업평가

1. 평가결과 요약

■ (연구사업평가) 우수 1개 기관, 보통 3개 기관

연구기관	평가항목					종합점수	평가등급
	전략목표1	전략목표2	전략목표3	전략목표4	가감점		
한국과학기술원	72.25*	70.76	71.50	78.91	-	72.54*	보통
고등과학원	85.50	75.79	80.50	-	-	82.31	우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79.60	72.25	81.79	-	-	78.90	보통
극지연구소	73.00	72.25	72.40	82.00	-	74.46	보통

*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로 인해 상위평가에서 직접 점수를 조정

※ 등급기준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 미흡(60점이상), 매우미흡(60점미만)

2. 기관별 주요 성과 및 평가내용

(1) 한국과학기술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전략목표 1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교수자 리더십 강화와 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결합한 체계 운영 • [우수성] (교육프로그램·플랫폼·리더십, B) P/NR·CUop 등 제도 관련 실질적 학습효과 검증 부족, (멘토링 A) 지도교수-프락터 연계 밀착형 멘토링 등 높은 참여도·만족도 달성 • [적절성] (교육프로그램·멘토링, A) 인재상 혁신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대상별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리더십, B) 질문중심 교수학습 등 성과관리체계 정교하지 않음 • [영향력-A] 교육적 환원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인재양성의 효과성이 우수 • (성과목표 1-3, 우수성, 영향력) “학생중심 멘토링 체계 확립” → 독창성과 독보적인 성과 확인을 위하여 선진국 유수의 대학과의 비교자료 제시가 필요
	중간 점검	• 부정적 평가의견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도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의 부합성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부처 소명	• 양적/질적인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이며,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진국 유사대학과의 비교자료로 보여주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성함 • MIT 등 유사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KAIST 현재 수준 진단이 필요해 “글로벌 맥락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시함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전략목표 2		소명 검토	성과목표 1-2 이의신청내용에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B" 등급으로 평가함"이라고 하여 같은 논리라면 "선진국 유사대학과의 비교자료"가 없으므로 1-3의 우수성, 영향력도 B등급 부여가 타당함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점수조정, 5.50점 하향, 72.25/100)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URP 참여자의 Nature급 저널 게재 등 연구자 조기 육성 파이프라인 확보 • [우수성] (기초과학·응용연구·산업 특성화, B) Science 등 최상위 저널에 다수의 세계 최초·최고 수준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특정 분야 편중 경향, (연구자 육성, A) SCI 저널 Editor 확보, 석좌교수 확보 등 주요 지표 초과 달성 • [적절성] (기초과학·응용연구·산업 특성화·연구자 육성, B) 난제 유형별 전담 조직과 대형 연구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했으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간 통합 연계 부족 • [영향력-B]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성과 다수 창출, 사회·산업적 파급효과 입증 필요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평가이나 응용연구 분야의 실적이 언급됨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검토	• 일부 성과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실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전략목표 3		소명 검토	• 기초과학분야와 응용연구분야를 개념과 성과산정 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0.76/100)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10X-KAIST계획을 통한 개도국 과학기술원 설립 지원과 KAIST-NYU 공동학위 협력 • [우수성] (국제협력·외국인 유치·글로벌 캠퍼스화·혁신모델 전파, B) KAIST-NYU 등 중장기 국제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실감형 교육콘텐츠 활용은 일부 학과에 편중 • [적절성] (국제협력·글로벌 캠퍼스화·혁신모델 전파, B) 이중언어 문화 구축의 완성도와 비공학 분야 확대 전략 부족, (외국인 유치, A) 비자 패스트트랙 도입 등 선발·장학·제도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도전적인 수행 • [영향력-B] Kenya-AIST 건립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수평적 협력 모델과 개도국 대상 과학기술 고등교육 수출 모델 동시 구축했으나, 성과 추적체계 보완 필요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1.50/100)
전략목표 4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으로 혁신 생태계 형성 • [우수성] (창업자 육성·국가 지원, A) 누적 661개 창업 등 국내 최고 수준 창업 실적 달성과 교육-연구-창업의 선순환 구조 구현, (엑셀러레이팅·글로벌 성장, B) 창업 주요 프로그램과 해외 시장진입 실질 성과의 정량적 입증 부족 • [적절성] (창업자 육성·국가 지원, A) 예비창업자 발굴부터 창업 실행까지 실효성 있는 운영, (엑셀러레이팅, B) 운영된 프로그램 단계 간 파이프라인 연계와 KAIST 홀딩스의 투자·성장지원 기능 작동 미흡, (글로벌 성장, C) 계획서의 주요 수행수단 구현되지 못함 • [영향력-A] 창업기업 가치 약 10조 원 규모 혁신 생태계 형성 등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입증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8.91/100)

(2) 고등과학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전략목표 1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수학·계산과학 분야 필즈상·아벨상 등 권위있는 수상실적 확보 • [우수성] (자율연구, 연구교류허브 A) 필즈상·아벨상 등 잇따른 권위있는 수상실적으로 연구 수월성 향상, 방문과학자 JCR 상위 10% 논문 비중 안정적 유지(6년간 평균 19%), 세계 최상위 연구자와의 지속적 교류 체계 확보 등 • [적절성] 자율연구, 연구교류허브 B) 연구몰입 환경, 방문연구자 제도·학술행사 운영체제는 적절하나, 물리학 공동연구 협력 미흡과 계산과학 분야 연구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공동연구가 수학 분야 일부에 한정됨 • [가점]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에 따른 가점 부여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5.50/100)
전략목표 2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수학분야 세계적 난제 해결에 지속 도전하고 '소파 움직이기 문제' 등 성과 지속 발생 • [우수성] (수학난제발굴, 양자·우주 이론 규명 A) 세계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소파 움직이기 문제' 등 난제 연구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양자정보·통계열 역학 등 융합 연구를 통해 우수성과 창출, (인공지능 이론연구 B) NeurlPS 구두 발표 성과가 확인되나, 일부 논문이 성과목표와 직접적 연관성 부족 • [적절성] (수학난제발굴 C) Thematic Program의 난제 발굴 수단으로서의 타당성 부족과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 건립 차질 우려, (양자·우주 이론 규명, 인공지능 이론연구 B) 융합 연구그룹 구성과 AI 인프라 구축은 적절하나, 체계적 융합 연구 로드맵 및 추진 방향-내용 간 연계성 보완 필요
	상위 평가	• 실적보고서 등에 제시되지 않은 허준이 기념관 건립 부정적 언론 의견이 등급점수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그럼에도 해당 대외 지적사항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 수학난제센터를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실적보고서에 명시되었으며, 기관발표자료에 연구수행 적절성에 포함된 상황
		• 허준이 기념관 건립 등이 실제 성과목표2-1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연구수행의 적절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미흡등급에 부합하는 평가의견 제시 필요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5.79/100)
전략목표 3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정규직 배출 비율이 직전 대비 크게 상승 신진연구자 양성 성과 제고 • [우수성] (미래 연구리더 양성 A) JCR 상위 20% 논문 비율이 6년 누적 46.6%를 유지하고, 신진연구자 양성 성과가 뚜렷이 향상 • [적절성] (미래 연구리더 양성 B) Fellow 제도·멘토링·해외단기연수 등 지원 체계는 적절하나, 학부 간 운영 편차 및 프로그램별 성과 환류 체계 보완 필요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0.50/100)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전략목표 1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조직-개인 대상 교육수요를 적시에 반영한 교육 제공과 HRD 전반에 적용 가능한 성과평가 모델 완성 • 전략목표인 과학기술인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세부적인 성과 목표 1. 과학기술인 역량 강화 프로세스 고도화와 성과목표 2. 과학기술인 역량향상 및 지원범위 확대 노력은 체계적으로 수행됨 • 다만, 국가적 차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주관기관 으로서의 교육 전문성 확보에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며, 국가전략산업에 기반한 새로운 산학연 교육 수요자를 위한 성과 창출 확대도 더욱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9.60/100)
전략목표 2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온라인 교육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기획, 온라인 교육 허브 기능 강화, 자체 운영 프로세스 확립 • 필수 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과 자발적 학습조직인 '러닝랩'의 확대를 통해 과학 기술인의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전략적 고도화와 최신 교수학습 동향 아카이브 개편 및 클라우드(MSA)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플랫폼 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 NIA 지원사업 연계 등 수행 전략의 적절성을 확보함 • 다만 인터랙티브 저작도구, 생성형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학습자 몰입 및 신뢰도 향상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며, '신교수학습 모델', '스마트 플랫폼'의 주요 기능이 민간 상용 기술을 단순 활용 또는 커스터마이징한 수준에 그쳐 연구인력개발 전문기관만의 차별성이 부족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2.25/100)
전략목표 3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사다리형 통합 교육 지원 • 과학기술인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경력단계별 맞춤형 성장과 과학기술 인재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함 • 다만,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연구수행 적정성을 직접적, 질적으로 기관의 연구성과와 연구 수행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활용이 필요함 • (영향력) 경력개발 성과측정 결과 청년 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계 취업률은 보통 수준, 고경력자 과기인 사회 재참여 활성화 수준은 매우 우수한 수준임
	중간 점검	• 매우우수로 평가한 측정지표 수치별 객관적 판단근거(비교근거) 제시가 미흡하고, 우수하다는 평가의견과 평가등급의 부합성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평균 국가취업률+10% ≤ 당해 수치'를 매우 우수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기준치는 외부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수준으로 평가함. 또한 과학기술인 학습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재직 과학기술인의 전문성 향상과 교류확대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소명 검토	• 해당 항목의 우수성 판단 근거, 평가문구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 판단기준 관련 보완이 필요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1.79/100)

(4) 극지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전략목표 1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극지 연구를 기반으로 지하구조·맨틀 특성 규명, 활화산 분출 메커니즘 해석, 퇴적학적·지화학적 환경 분석 등 과학적 성과를 도출 • [적절성] 통합 인프라를 활용해 계획된 목표를 성실히 달성한 점은 우수하나, 연구성과 간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 활용 부분의 보완이 필요함 • [우수성] 최상위권 논문 게재와 세계적 수준의 극지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제적 연구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일부 실적의 검증 단계에서 질적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영향력] 정책적 근거 제공 등 국가적 기여는 인정되나, 산업화 연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명하는 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3.00/100)
전략목표 2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모델링·관측·원격상관 통합 연구를 통한 북극-한반도 기후 연계 메커니즘 규명 및 지구 시스템 모델 기반의 예측 기술개발 • [적절성] 국제 공동 탐사 참여와 기관 내 협업으로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지만, 개별 성과를 통합 예측시스템으로 가시화하는 노력은 다소 부족함 • [우수성] Nature 등 최상위 저널 게재, Si기반 해빙 자료동화 기술 등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였지만, 실질적인 예측 성능 향상으로 직결된 성과는 일부 인정됨 • [영향력] 확보된 항공 레이더 시스템은 탐사 관련 국내 민간기업 기술 역량 향상, 기술이전과 협력을 통한 탐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중간 점검	• 사회·경제적 영향력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비교 기준 또는 판단 근거 등의 보완이 필요함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3차원 빙하 레이더, VTOL 드론, 청정열수시추 시스템 등은 수입 대체 효과 및 극지 탐사 용역, 해외 서비스 수출 등 직접적인 산업화 기회를 창출 가능성이 높음
	소명 검토	• 관련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근거를 제시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2.25/100)
전략목표 3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학술 성과와 공공기술의 실용화 실현 • [적절성] 극지 생명자원과 분석데이터 기반 통합 DB 구축을 통해 핵심실적을 유지하였으나, 기술성숙도 기반 성과관리와 이행 점검이 다소 부족함 • [우수성] KOPRI 1호 연구소기업 설립과 파일럿 20L급 처리 규모의 동결 수처리 실증 성과 도출은 극지 연구를 바이오 및 환경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였지만, 유전체 연구가 기초 해독 및 분석 단계이며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확보가 필요함 • [영향력] 극지 생명자원 유전체·대사체 분석을 위한 독자적 분석 플랫폼 구축 가치는 인정되나,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정책적 활용 근거의 보완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2.40/100)
전략목표 4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성과) 남극 빙저지형도 작성을 위한 항공기용 빙하탐사 시스템 개발 • [적절성] 글로벌 선도기관 네트워크 협력으로 핵심 기술 조기 확보, 위기상황에서도 북그린란드 거점 확보 등 유연한 목표 달성 전략 우수 • [우수성]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항공빙하레이더 개발, 세계 6번째 남극 내륙 진출 루트(K-루트) 개척 등 독보적인 인프라 구축 성과 창출과 북그린란드 신규 거점 확보, 국제 공동 탐사 주도로 극지 탐사 영토 획기적 확장에 기여 • [영향력] 독자적 탐사 인프라 확보로 글로벌 극지 연구 주도권 기술 위상 제고, 장비 국산화로 인한 외화 절감 효과 등 향후 탐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2.00/100)

제3절 통합평가

1. 평가결과 요약

■ (통합평가) S등급 3개 기관, A등급 13개 기관, B등급 7개 기관

종합등급	연구기관명
SS (90점 이상)	-
S (85점 이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A (80점 이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B (75점 이상)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C (70점 이상)	-
D (70점 미만)	-

※ 연구기관 간 상대 비교 방식을 위하여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평가등급만 공개

2. 기관별 주요 성과 및 평가의견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KIST形 임무중심 R&D 모델 제시 → 연구개발을 기술성과 중심에서 국가·사회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운영·평가 체계를 임무 기반으로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출연(연) 역할 혁신을 보여주는 매우우수한 사례임 • (경영혁신사례②) 출연(연)-민간 합작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키스트이노베이션(주)' 출범 → 공공 연구성과와 민간의 투자·사업화 역량을 결합한 One-Roof형 딥테크 사업화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발굴부터 투자·회수까지 전주기를 통합한 수익 구조 기반의 중장기적 자립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 (재정집중도) 최근 3~4년간 첨단바이오, 뇌과학, 천연물 신약 등 전략 분야 중심 재정 투입 비중 확대, 분야별 투입 현황을 구체적인 수치 제시로 체계적으로 관리중 → (인적자원) 연구인력의 55~60%를 임무중심연구소에 배치하여 전략 분야 중심 인력 집중이 조직 운영 체계에 실질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임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자원과 인력 활용 전략의 효율성·효과성을 판단한 근거 제시, 실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부처 소명		- 첨단바이오, 뇌과학, 천연물 신약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비중 확대와 분야별 재정 투입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첨단바이오 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22년 32,006백만원 → '25년 41,871백만원으로 증가) - 전체 연구인력의 약 55~60%를 임무중심연구소에 배치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전략 분야 중심 인력 집중이 조직 운영 체계에 실질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소명 검토	- 재정 투입은 첨단바이오, 뇌과학, 천연물 신약 분야에서 각각 전년 대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p, 0.8%p, 0.4%p 감소, 뇌과학은 2022년에 비해서도 비중이 11.3%에서 7.6%로, 천연물 신약은 4.1%에서 3.4%로 감소하여 세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답변의 근거가 부족함 - 전년 대비 전체 인력에서 연구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첨단바이오 2.1%p, 천연물 신약 0.5%p 증가, 뇌과학은 1.3%p 감소로 확인됨. 기관 전체 예산·인력의 절대 규모만을 근거로 혁신성고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평가등급 내 점수조정)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국가전략기술 및 기관 중점 임무와 연계된 개방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단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연구 및 성과 확산 모델을 제시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대표연구성과①) 혁신적 치매 신약 후보 물질, 5,000억 원 규모 초대형 기술 수출 성공 → 혁신적 치매 신약 후보 물질 약 3억 7천만 달러(약 5,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술이전으로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확보 등에 기여한 점이 매우 우수함 (대표연구성과②) KIST-LG, 한국형 AI 휴머노이드 'KAPEX' 기술이전 및 상용화 협력 → 글로벌 대비 높은 70 자유도 이상의 인체형 구조 구현으로 정밀 작업 능력 확보(LG전자와의 80억 원 기술이전)와 "원천기술→실증→상용화"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 구축
	상위 평가	중간 점검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사회안전 AI·로봇 통합솔루션 구축 → 핵심 요소기술 통합 시스템 수준의 솔루션 구축으로 연구기관의 응용·실증 중심 연구 특성과 사회문제 해결 기능 반영 ② 치매 등 뇌질환 치료·진단을 위한 혁신적 약물/기기 상용화 → 차별화된 기전 연구로 후보물질 발굴과 치료·진단 융합 연구가 독창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우수 ③ 건강 수명 연장 혁신적 천연물 신약 개발 → 고령사회 대응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국가 정책 과제와 연계된 연구로 공공적 가치가 있음 ⇒ 임무중심연구소의 전략기술 분야는 물론 일반 연구부문의 기초·융합 연구 성과도 포함할 수 있는 균형적 성과지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2)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채용부터 인재 육성까지 전 주기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인력 운영 기반 구축 → 직무 중심 채용 제도 도입과 채용 홍보 채널 다각화를 통해 정규직 결원율을 축소하고(4.6% → 2.9%), 신규입사자 워크숍, 사내 강사 교육, 교육비 지원 등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인력 운영 기반을 강화 • (경영혁신사례②)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연구기획 및 업무 지원 환경 고도화 → 정책 수요 발굴 채널 확대와 연구과제 선정 프로세스 개선 등 전략적 연구기획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개선과 지원부서 평가 도입 등을 통해 연구행정 지원 환경을 개선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기후기술 산업 및 연구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협력 확대 활동에 있어 기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데이터 기반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 플랫폼 구축 → 16대 탄소중립 기술분야의 기술 역량 높낮이를 세계지도에 표출한 웹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수준 파악·협력 파트너 발굴·투자 방향 설정 등에 대해 공공 인프라로서 기여하고, 플랫폼 접속자 수가 대폭 증가하여 사회적 확산 가능성 입증 • (대표연구성과②) 개도국 실증사업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연계 성공으로 K-기후기술 해외 진출 촉진 → U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녹색기후기금-한국 국제협력단으로 이어지는 다자간 사업 연계와 스케일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기술 실증사업에 대한 독자 기획, 예산 확보로 K-기후기술 해외 진출 촉진 기반 조성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정책 채택률 → 정책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인정되지만, 정책 채택의 수준이나 영향력에 대한 질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② 정보플랫폼의 접속자 수 → 전년대비 대폭 상승하였으며, 목표대비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양적 성과는 우수 ③ 기업 자원을 통한 재무 기여액 → 연구 및 지원활동이 기업의 매출증대나 투자 유치 등 가시적인 재무성과로의 연계 여부를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기관 임무와 정합성이 높음 ⇒ 전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정책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확인함
	중간 점검	• 정책 채택률 지표에 정책 “반영” 실적 기준이 모호하고 채택된 정책 내용의 수준이나 국가 기여도를 확인할 수 없어 혁신성·도전성이 우수하다는 근거가 부족함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연구소에서 제안한 정책이 수용·채택되거나, 정부의 공식문서에 반영되어 국제기구 등에 제출되었다면 정책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하여 실적을 인정함
	소명 검토	• 공식 정책채택률 정의는 “정부 부처 등에 제안하고 채택된 실적”임에도, 자체적으로 ‘채택’(부처 수용)과 ‘반영’(대외 발신 자료 활용 또는 부처 명의 공표)을 구분 정의하면서, 스스로 ‘반영’으로 분류한 실적을 채택률에 산입하고 이를 자체평가에서 인정한 것은 지표 정의와 실적 산정 기준 간의 불일치에 해당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점수조정으로 평가등급 하향)

(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채용부터 인재 육성까지 전 주기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 및 인력 운영 기반 구축 → 8개 지역 조직을 4개 권역별 센터로 개편함으로써 대형 융합연구 추진과 중장기 임무 수행을 위한 기관 차원의 역량 결집 기반 마련 • (경영혁신사례②)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연구기획 및 업무 지원 환경 고도화 → 대형 연구시설과 시를 결합한 자율 실험실 모델 수립과 바이오·소재·지구환경 분야로의 확대 적용계획 마련으로 지능형 연구 플랫폼 전환 기반 조성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KBSI-WTCL 국제 분석과학 연구그룹 추진, 호라이즌 유럽공동연구 3건 기획, 권역별 센터 기반 지역산업 수요 연계형 협력 등 개방형 협력 저변 확대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난치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표적 단백질 발굴 및 분자 기전 규명 → 루게릭병에서 나소소재 기반 접근을 통해 병리적 단백질 응집의 선택적 억제와 신경 기능 회복 가능성 입증으로 난치성 신경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 • (대표연구성과②) 이차전지 계면반응 분석을 통한 이차전지 열화 및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 첨단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차전지 열화 및 화재 원인을 계면반응 차원에서 규명하고 이를 제어하는 원천기술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학술성과를 창출하고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대표연구성과③) 반도체 열·신뢰성 난제 해결을 위한 장비개발 및 사업화 →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발열을 정밀 측정하는 열반사 현미경을 자체 개발하여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분해능과 선진 수준의 공간분해능을 확보하고 TEM 장비 설계 기술을국산화, 반도체 열·신뢰성 분석 핵심 장비의 국산화 등에 기여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전체 논문 중 JCR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 → 성과의특정 연구그룹 편중을 완화, 장비·기술지원 과제의 기여도, 후속 연구비 확보·국제협력 등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② 첨단·대형연구장비 공동활용 논문의 mmlf 평균값 →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신진 연구자와 비수도권 대학 연구자에게 고가 장비 활용 기회 확대 정책 지원 방안 검토 필요 ③ 정보 플랫폼의 접속자 수 → 성과의 균형적 확산 전략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논문 성과가 대형 국제과제 수주 및 연구 인프라 확장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강화할 필요 ④ 연구장비개발 분야 연구비 투입 대비 기술이전 수입액 →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 파트너 확장, 제품화·표준화 연계와 경상공술로 기반 수익 구조 확대를 통해 성과의 지속 가능성 강화가 필요함 ⑤ 기업 지원을 통한 재무 기여액 → 기관 고유 임무와 R&D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반영한 타당한 지표로 평가되나, 지표의 도전성과 성장성을 보완하고 해외 특허 확보 및 글로벌 라이선싱 확대 등을 통해 성과 확산과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상위 평가	• '도전적 목표를 초과 달성(각 143%, 180%)'이라 명시하였으나, 적절성·타당성을 '보통(0.8)'으로 부여함 (자체평가 부적절) • 성과지표 적절성·타당성(정성평가)과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정량평가) 종합적 평가 • 타 기관과 비교해도 형평성 및 평가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임
	소명 검토	• 구체적인 근거, 형평성, 일관성에 기반하여 충분히 소명되었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임무중심형 경영체계 혁신 → 연구소 격상과 첨단바이오 특화 연구소 지정을 통한 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국가 아젠다 해결 등 강력한 실행 체계 구축 • (경영혁신사례②) 국가 바이오 과학기술 안전보안체계 선도 → 국가 바이오 안보 및 안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신을 통해 안전 중심의 산업화 기반 마련과 기관장의 정기적 현장 특별점검 등 실천적 안전 리더십을 바탕으로 연구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정책 실행력을 극대화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교육 기부 우수기관 3회 연속 지정, MZ세대 맞춤형 웹툰 제작(5회), 청소년 토론대회 운영 등 콘텐츠 다변화 노력이 인정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오가노이드 활용 맞춤형 재생의료 플랫폼 개발 → 기관의 고유 임무와 국가 전략기술 방향에 부합하는 성과로, 국제 표준화와 독성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기술적 우수성과 글로벌 규범 선도 가능성을 보여줌 • (대표연구성과②) 초소형 항체 기술 플랫폼을 이용한 난치암 극복 기술 개발 → 학술성과에 따른 원천기술의 완성도와 기술이전에 따른 산업적 잠재력을 보여줌 • (대표연구성과③)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영상류 전임상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실증 → 바이오 인프라 고도화에 부합하며, 대학 단위 수행이 어려운 공공 인프라를 확보함 ⇒ 원천기술 확보, 국제 표준화 주도, 전임상 평가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고르게 성과를 창출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JCR 상위 10% 이내 논문비율(주/교신저자 기준) → '25년 실적(37.5%)이 이미 최종 연도인 '29년 목표치(33.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를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우수특허 비율(해외특허 및 PCT특허 비율) → 기술의 국제 경쟁력과 질적 수준을 반영하며, 기술의 질적 평가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 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음 ③ 기술창업기업의 고용인원 → 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반영할수 있는 지표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확산과 산업 기여 역할 평가가능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감점	중간 점검	• NST 종합감사 보고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원숭이 국내 도입업무 부당처리 등” 사안 처분 확정시점이 2025년인 경우, 해당 사안의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25년 연구사업평가 시 본 사안에 대한 평가단의 감점 논의사항에 대해 검토 후 최종 평가의견서에 반영(감점 미적용)함 • 평가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반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던 점과,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권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소통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 R&D 협력, 인사제도 개선, 연구행정 디지털 전환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협업 성과의 연구과제·기술사업화 연계 등은 보다 강화할 필요 • (경영혁신사례②) KISTI 보유 역량 기반 기술이전기업 후속지원 제도 운영으로 파트너 기업 성장 협력 → '건수' 중심에서 기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ASTI·지역조직·연구자·TLO가 참여하는 협력 기반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통해 상용화 단계까지 연계 지원한 점은 긍정적임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국가 재난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여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기술의 연구, 연계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국가 연구생태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 핵심기술 국산화로 구축비용 절감과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제시 • (대표연구성과②) 한국형 AI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특화 생성형 AI 핵심 역량 확보 → 과학기술 특화 생성형 AI 모델(KONI)을 개발하여 외산 AI 플랫폼 의존 없이 연구 생산성과 분석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표연구성과③) 공공R&D '데스밸리' 해소를 위한 AI 기반 기술사업화 분석 플랫폼 'APOLLO' 확산 → 플랫폼을 통해 기술매칭을 시도한 수요기업의 활용 만족도 등 실질적 활용 성과 중심의 데이터 제시와 플랫폼 이용자의 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중간 점검	• 수행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전략이 요구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 평가등급은 "우수"로 부여됨에 따라 등급 부여의 판단 근거와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국가 연구인프라 기반의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그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공공·국가 연구망 중심의 실증과 검증이 우선될 수밖에 없음 • 양자암호통신 기술의 초기 단계 특성상 공공·국가 연구망 중심의 실증 및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됨
	소명 검토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인프라 가용률 → 슈퍼컴퓨터(98.37%), 연구망(99.99%), 대용량데이터센터 (99.05%)를 산술평균한 수치는 99.14%로 목표대비 100.1%를 달성하여 우수함 ② 인프라 활용 SCI(E) 논문 수 → 슈퍼컴퓨터 활용 SCI(E) 논문 147건, 연구망+대용량데이터센터 활용 SCI(E) 논문 262건, 총 409건으로 목표 341건 대비 119.9%, 전년실적(374건) 대비 109.4%를 달성한 것은 우수함 ③ 기데이터 플랫폼 API 호출량 → 데이터 플랫폼 API 호출량 '25년 실적은 284.3백만 건으로 목표(283백만 건) 대비 100.5%를 달성하여 우수함 ④ CI(E) Q1 등급 논문 수 → '25년 목표 대비 실적은 직전 3개년 평균 실적과 동일한 실적이며, 동시에 전년도 실적(24건)보다는 낮은 실적임 ⑤ 5천만 원 이상 기술이전 건수 → '25년 목표 대비 112.5%(9건)의 실적으로 당초 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음. 년도('22년, '24년)와 동일한 실적 수준임 ⇒ 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논문과 기술이전 실적은 도전성과 혁신성 미흡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6) 한국한의학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산업 연계형 연구·지원 체계 구축 → 산업 연계 성과의 시의성 제고 및 중장기 조직문화 혁신 로드맵 수립을 통한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경영혁신사례②) 지속 가능 연구물입 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만족경영 체계 운영 → 분기별 ‘펄스 서베이(Pulse Survey)’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및 선제적 조직 관리 기틀을 마련한 점은 적절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산·학·연·관 공동 활용 허브 역할을 잘 수행하여 6개 국제공동연구를 착수한 점이 체계적인 대내·외 협력 확대 노력으로 인정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미활용 한약자원의 업사이클링 기반 면역제어 소재 개발을 통해 지역-기업 동반성장 모델 실현 →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약 자원 기반 연구성과를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성장 모델로 확장 • (대표연구성과②) 세계 최초 성상교세포의 면역기억 저하로 인한 APOE4 알츠하이머 발병 기전 제시 → 세계적 학술지 게재를 통해 학술적 독창성과 파급력을 입증한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이나, 임상·사업화 성과의 구체화가 필요함 • (대표연구성과③) 맥진의 디지털 전환(DX)을 위한 맥와치(脈 watch) 및 표준 평가 시스템 개발 → 독창성과 상용화 가능성이 돋보이나, 당해 연도 성과의 위치와 임상적 활용 근거는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의 학술적 성과, 디지털 기반 기술혁신, 지역·산업 연계 성과를 고르게 제시하며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각도로 보여줌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mnIF 상위 5% 논문 비율(%) → 논문 성과가 향후 한의학연구의 정책 수립 및 임상 활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 지표 개발이 필요함 ② 특허활용률(%) → 특허 활용률은 외부 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 자체의 수월성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③ 한약자원 인프라 공유 지수 (K-Herbs Index) → 인프라 활용량 중심으로 설계되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나 세계적 연구 경쟁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④ 한의학 표준 확산 지수 → 정량 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표준의 실제 산업적·임상적 질적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K-MAP 구축을 통한 제조기업 단납기 고수익시장 창출 → 'K-MAP 구축을 통한 제조기업 단납기 고수익시장 창출'은 디지털 마케팅과 기술 해결을 연계한 시장 지향적 혁신 모델로 기업 협력 성과를 창출함 • (경영혁신사례②)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집중지원 강화 → 2,975개 파트너 기업에 대한 전수 등급화와 데이터 기반 상시 관리 및 맞춤형 전주기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K-MAP 등 주요 혁신 사례와의 유사성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 방식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다양화 추진이 필요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평가의견 (안)	• 지역 교류 활성화 등 전략적 인적자원 배분의 실질적 성과와 중소기업 지원의 혁신적 플랫폼 구축 사례 등 실질적 개방형 협력 성과 창출 등이 우수함
개방형 협력성과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평가의견 (안)	• 지역 교류 활성화 등 전략적 인적자원 배분의 실질적 성과와 중소기업 지원의 혁신적 플랫폼 구축 사례 등 실질적 개방형 협력 성과 창출 등이 우수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Add-on 모듈 탑재를 통한 지능형 부리공정기술 개발 → 막대한 설비 교체 없이 기존 설비 및 장비에 부착해 관측과 제어의 어려움이 있던 부리 공정의 기술 한계 극복에 기여함 • (대표연구성과②) 섬유기반 공기내 유해인자 저감기술 개발 → 원천 소재 개발부터 통합 솔루션 개발까지 연계 과정이 우수하며, 고성능 필터 소재의 국산화와 유해화학물질·미세입자·병원체 동시 제어 통합 솔루션을 확보함 • (대표연구성과③) 제품 제조현장 작업파트너 로봇 기술 개발 → 전자피부 기반 촉각·근접센서를 활용한 Physical AI 기반 작업파트너 로봇 기술을 구현하는 등 제조 현장의 작업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인간-로봇 협업 기반 핵심기술을 확보한 점이 우수함
	상위 평가 점검	• 국제 수준과의 객관적 비교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의견과 평가점수의 부합성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소명 검토	• 집체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자료 등을 통한 객관적인 판단하에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수준임이 인정되었음 • 상위평가의견에 대해 구체적 근거와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 자체평가 이의신청 내용을 인정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JCR 상위 5% 이상 논문 비율 → 유사한 규모 또는 특성을 가진 국내·외 선도기관과의 실적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② 특허 기술이전율 → 연구 성과의 산업적 연계도 및 활용 가능성을 반영하여 단순 특허 등록이 아닌 질적 지표를 설정한 점은 적절하나, 이전된 기술의 파급효과 등 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 ③ 연구직접비 대비 기술료 비율 → 연구성과의 경제적 가치 및 연구비 투자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지표이며, 의견 기술료 비율의 경우 기술료 수입의 절대적 성장 여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을 권고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이음투자 프로그램’ 브랜딩으로 연구결과 및 성과 촉진 →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내부 연구사업을 프로그램형 투자 체계로 전환하여 전략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연구성과 창출을 강화한 구조적 혁신 사례로 평가됨 • (경영혁신사례②) ‘R&D-사업화-기업지원’ 통합·완결형 성과확산체계 정립 → 연구성과 사업화, 확산 전략적 연계와 기관 차원의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보유기술과 자원의 공유를 통한 협력기업의 R&D혁신과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적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 운영 성과가 파급 효과가 큼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세계최초 6G 통신 PoC 성공 및 표준 핵심기술 확보 → 핵심 원천기술 선제적 개발과 단말-기지국 간 200Gbps 실시간 전송 시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보여줌 • (대표연구성과②) 미디어 기술 국제표준 확산 및 브라질 국가표준 채택 → 차세대 공중파 방송 표준(TV 3.0)으로 채택되었으며, 향후 브라질 내 모든 방송 장비에 국내 기술이 탑재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술로 수익원 확보가 예상됨 • (대표연구성과③) 로봇핸드용 전방위 촉각감지 유연압력센서 개발 및 사업화 → 경쟁 기술(10kPa-1)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감도(15.17kPa-1)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요기업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JCR 상위 10% 이상 및 우수학술대회 논문 수 → 전략기술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 논문 비중이나 대표 논문에 대한 질적 우수성은 미흡함 ② 해외3국 특허 → 해외 특허 확보 양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특허의 효율적 관리 필요 ③ 중점전략 기술분야 최상위급 표준성과 →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기초서 승인 및 제정 성과가 집중되어 국가 기술 주권 확보에 노력함 ④ 기술료 수입 → 대형 기술이전 의존도가 크며, 연구 생산성 대비 수익률 측면 보완 필요 ⑤ 연구성과 사업화율 → 사업화율 지표 특성상 시차가 크고 외부 요인(국내·외 경기, 기업 경영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어, 연 단위 평가에서 장기적 성과 추적 및 질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감점	상위 평가	•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국가연구개발 부당 수행 및 연구개발성과 허위 제출 등” 사안이 재심의 신청(‘25.7.17.) 후 재심의 진행중인데 추진 경과에 대한 확인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 현재 재심의 진행 중에서 별도 논의한 결과 중복감점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 • 재심의 진행중인 사안에 대한 감점이 25년 기관운영평가에 기반영도되었음이 확인되어 자체평가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됨
	중간 점검	
	부처 소명	
	소명 검토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자율·책임 중심의 연구조직 운영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 강화 → 기존의 경직된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본부 내 자율 편성이 가능한 연구 소그룹 27개를 신설하였으며, 부원장·본부장 중심의 권한 위임을 강화하여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경영혁신사례②) 자생적 국제공동연구 협약 표준화 프로세스 수립 및 운영 → 텀시트(Term sheet) 기반의 국제협상 절차를 도입하고 핵심 조건별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협상 소요 기간을 기존 대비 58.7% 단축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사무국 운영을 통한 건설산업 생태계 활성화, 개도국 대상 K-건설 기준·기술 확산 이행 등 실질적 성과의 창출이 매우 우수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대형·급속화재 대응 국민 안전 확보기술 → 대형 물류시설 화재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기능성 건축단열재와 비철계 충전형 보강공법을 개발하고 실험규모 실험과 현장 적용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여 화재 안전성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확보한 국민 체감형 우수 연구성과임 • (대표연구성과②) 탄소중립 달성의 기반, 탄소공간지도 구축 → 10m 격자 기반의 고해상도 탄소 배출·흡수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활용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사업화 및 국제협력 성과를 창출한 우수 연구성과임 • (대표연구성과③) 인명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 원격 시공 로봇, 지능형 다짐, XR 기반 자동 검측 기술을 개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정량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실증 및 표준시방서 개정을 통해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한 우수 연구성과임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안전안심 및 탄소중립 국민체감 촉진 : 특허활용률 → 건설 R&D 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해 등록 특허 활용률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용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은 타당하나, 향후 타 기관 실적에 의존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한계 보완을 위해 독자적인 목표 설정, 기술료 등 질적 사업화 성과를 반영한 지표 고도화가 필요함 ②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 우수 SCIE 논문 비중 → 논문의 단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우수 학술지(Q1) 중심의 질적 평가 체계를 도입한 점이 연구 수월성 중심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엄격한 질적 기준 도입을 통해 성과지표 고도화가 필요함 ③ 건설 생태계 혁신 선도 : 건설정책·기준 반영 지수 → 건설산업의 제도 중심 구조를 고려하여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한 점은 기관 역할과 정책 확산 측면에서 타당하나, 향후 지표의 도전성 강화와 성과의 질적 차별성, 정책 반영 효과의 객관적 검증 등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AX 기반 연구행정 오케스트레이션으로 만든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지능형 행정 시스템 구축, 연구성과 자동 요약·영상화 등 출연(연) 연구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도입하여 AX전환의 대내·외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함 • (경영혁신사례②) 실천 중심의 내부 조직문화 혁신, 출연(연) 개방형 조직문화 학습조직 운영 등 공유확산 → 홍보문화실 신설과 참여형 활동, 개방형 학습조직 운영 등을 통해 조직문화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꾸준히 향상시킴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해외철도 관계기관과 기술교류 실적 3배 증가, 중소기업 지원 공동연구 비중 확대, 학·연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상업 운행속도 370km/h(세계 2위) 고속열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완료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행저항, 진동, 소음 등 기술현안 해결에 철도연이 해석검증 등을 통해 상용화 기반구축에 기여함 • (대표연구성과②) 극한 기후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철도 시설물 지능형 관리기술 확보 → 철도 재난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일부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차별화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확보함 • (대표연구성과③)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열차 및 자원순환·에너지효율 기술개발 → 온보드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을 통해 기체 압축 수소열차 대비 주행거리 연장과 함께 공급시스템 부피 10%, 중량 5% 저감 효과 달성으로 독보적인 기술 우위 확보
	중간 점검	• 타 기관에서 수행한 성과를 기관성으로 판단하여 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근거자료의 객관성이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제작사가 개발한 핵심 부품, 장치가 설계 목표치 충족에 대한 성능 검증과 해석을 수행하는 등 철도연이 기술개발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명 검토	• 철도연의 독자 개발 핵심기술 근거 불명확,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며, 산업체로의 기술이전도 제한적임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근거 미제시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평가등급 내 점수조정)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철도 인프라 AX 수준 → 철도연 비전과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서 제시한 AX (AI Transformation) 전략을 직접 반영한 핵심 성과지표임 ② 기술료 징수 실적 → 장기 추세·주요 기술군별 매출 기여도·계약 구조를 분석하여 기술료 수입 다변화 및 확대 전략을 제시할 필요 ③ 철도 안전·교통 정책 지원의 현장 적용 실적 → 철도 안전·교통 정책 지원 현장 적용 실적이 국가 철도 안전 기준에 반영됨. 전국 철도망의 안전 수준을 일괄 제고하는 구조적 변화 유도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표준화 등 정책 지원 기여 ④ 특허 활용률 → 목표치 달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산업 활용 가능성과 기술사업화 기반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지만, 전체 기술 활용 분석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황과 활용성 분석 전략 등의 제시가 필요함 ⑤ 중소기업 지원과제 기술실시계약 비율 → 중소기업 지원 성과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실효성이 확인되나, 기술실시계약 이후 중소기업 매출 증가, 고용 창출 효과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추적 분석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출연(연) 최초 전사적 논리적 망분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안보안성과 체계 확립 →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 효율성을 유지·개선하여 연구환경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우수함 • (경영혁신사례②) 국내 최초 기계가독형 디지털 교정성적서(DCC) 생성 시스템 구축 → 국제 디지털 전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측정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기반과 활용성을 높였으나, 시제 활용 확산 성과지표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미국 NIS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대전시와의 양자 클러스터 구축은 단순 협력을 넘어 국가 기술 주권 확보 및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국내 최초 2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터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활용 플랫폼 구축 → 「엄힘 게이트 충실도」를 세계 최고 대비 97% 수준으로 달성하였으나, 국내 기술 수준이 아직 선도국에 비해 뒤져 있으므로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의 격차를 뛰어넘을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 수립이 요구됨 • (대표연구성과②) SI 탑재 레이더 스텔스 핵심기술(설계·장비) 국산 자립화 → 기존 해외 프로그램 사용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로 레이더용 FS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인 점은 핵심기술 국산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됨 • (대표연구성과③) 차세대 절대길이 측정 시스템 개발을 통한 sub-nm급 세계 최고 정밀도 달성 → 세계 최고 수준의 길이 측정 민감도(4.5 pm/Hz^{1/2}), 길이 측정 정밀도(0.34 nm)로 차세대 길이 측정표준 원천기술을 확보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세계 최고 수준 SI 기본단위 재정의 선도기술 개발 : 시간 단위 재정의 대비 초정밀 광시계 개발 → 시간단위 재정의에 대응하여 국제원자시 기여, 광시계의 불확도, 절대주파수 측정 불확도, 광시계 비교 불확도 등 다수의 독립적인 필수 요구조건이 연차별로 어떻게 설정되는지 구체성이 부족함 ② 국가 양자기술산업 수요 대응 : 초전도 양자컴퓨팅 큐비트 고정밀 측정제어 기술개발 → 엄힘 게이트 충실도에 대한 세계적 수준(99% 이상) 진입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국가 첨단산업 수요 대응 : 첨단반도체 초정밀 측정분석장비 개발 → 핵심기술은 확보하였으나, 시범 적용 단계로 양산 라인으로의 적용에는 한계점이 보임 ④ 측정표준기술 분야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JCR 상위 5% 이내·Metrologia 논문 게재 비율(제1·교신) → 대국민 표준서비스 지속적 향상과 연관성이 높지 않으며, 실 수요자의 활용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측정가능한 지표로 볼 수 없음 ⑤ 대국민 표준서비스 지속적 향상 : 측정서비스 기술절차서 제·개정(교정·표준물질) → 단순 건수 중심 지표보다는 표준(연)의 성과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도전성을 포함하는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2) 한국식품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KFRI-BANKING 연계 CMS(전산 이체시스템) 기반 연구비 지급·정산 프로세스 도입 →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효율화의 실질적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실증 데이터 기반의 단계별 운영과 체계적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개별 국제 협력 성과가 특정 부서의 노력에 국한되어 전사적 협력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며, 기관 미션과 연계된 국내외 협력 통합 전략·로드맵이 부재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국내 천연물 활용 노화성 근감소 예방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획득 → 국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해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근력 유지'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소재를 확보하여 연구개발 성과가 제도적·산업적 활용으로 이어짐 • (대표연구성과②) 국산 식품 글로벌 규격화 대표성과를 위한 CODEX 김치 표준개정(원재료명 등재) 및 김 제품 세계규격 전환 신규 작업 승인 →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국제적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사례로, 국제 식품 규범 체계에서 국내 식품산업의 위상을 높인 국민체감형 성과로 볼 수 있음 • (대표연구성과③) 클린라벨 식품가공원천기술 이전 및 국내 최초 인증시스템 정립 → 최근 식품 산업의 건강·안전 중심 소비 흐름에 대응하는 연구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성과임
	상위 평가	• 대표연구성과 관련 추진체계 중 식품연과 김치연 간의 역할 분담 및 예산 비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중간 점검	• 식품연은 식품 국제표준 수립의 근간이 되는 표준서 작성을 주도적으로 수행 (표준서는 신규작업제안서부터 규격초안, 규격안, 최종적으로 코덱스 표준까지의 일련의 문서)
	소명 검토	• 식품연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되며, 평가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의견을 제시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JCR 상위 10% 이내 논문(3년 평균, 건) → 중장기적으로는 목표치의 도전성과 차별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② 특허 가치 지속성 지수 S등급 비율 → 연구 성과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과 장기적 파급력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타당성이 높으나, 특허 활용의 실질적 성과와의 연계성 제시는 부족함 ③ 식품기업 인프라 지원 → 식품기업 현장 지원이라는 기관 고유 기능을 평가에 적절하나, 성과의 질적 수준과 기업 성장 기여도 구분에는 한계가 있음 ④ 식품기업 수출지원 → 해외 인증, 국제 규격 대응 등 수출 장벽 해소 중심의 성과를 계량화한 점이 긍정적이거나, 단기 지원 실적과 함께 인증 취득 이후 활용 사례, 재지원 연계 현황 등 후속 정보를 보완하여 성과의 고도화가 필요함 ⑤ 푸드테크 기술 상용화 → 푸드테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성과지표에 체계적인 반영 필요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3) 세계김치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소규모 출연(연)의 한계 극복 : 혁신기획TF 기반 유연 조직 운영과 협력·지지 거버넌스를 통한 실행력 제고 → 의사결정 단계 축소,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원패스' 체계는 창의적인 사례임 • (경영혁신사례②) 체감형 물입환경 조성시스템 고도화 → 기관장 중심의 신속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직접구매 행정절차를 33% 경감하여 직원의 87.1%가 개선을 체감하였고, 1지망 부서 인력 배치 90% 달성 등 현장 밀착형 경영혁신이 우수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CODEX 김치 규격 개정, 미국 2025~2030 식단 가이드라인 내 김치 포함 결정 성과는 글로벌 식품표준 분야에서 국가적 외교 성과에 해당하는 독보적 업적임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김치 발효 불확실성! 과학으로 풀고, 종균기술로 현장 품질을 완성하다 → 품질제어가 어려운 김치를 대상으로 발효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종균 선별의 과학적 기준과 맛 숙성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확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김치 발효 과학화를 통해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대표연구성과②) 김치산업의 고질적 난제! 기술로 풀고 현장에서 답하다 → 김치산업에서의 난제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여 국민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냄 • (대표연구성과③) 김치 속 숨은 자원 발굴로 주권을 세우고, 공신력으로 세계와 연결하다 → 김치자원은행 구축을 통해 김치유래미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적 선점 기반 마련과 국제공인 네트워크에 편입으로 공신력과 확산성 확보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우수논문 생산지수 →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방향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상승 폭에 비해 향후 목표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됨 ② 특허 활용률 → 기관의 산업 확산 역할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특허의 질적 수준, 활용 범위, 글로벌 확장성에 대한 설명은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③ 기술료 생산성 → 최근 기술료 회수 비율이 크게 상승하며 사업화 성과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기술에 편중된 성과 구조를 넘어 중장기적이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화 전략 보완이 요구됨 ④ Wikim 동행 지수 → 김치산업 구조와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현장 체감형 특화지표로서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 동반 성장 성과를 적절히 포섭하고 있음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재난에도 멈추지 않는 KIGAM, 중요 연구·행정데이터 이중화 → 원격지백업 거점을 선정하고 정보시스템 업무 중요도를 기반으로 한 차등 관리 및 암호화 회선 활용 등을 통해 연구·행정 데이터의 안정성 강화 기반 마련 • (경영혁신사례②) 연구자에 응답하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디지털 생태계 전환 기반 구축 → LLM 기반 특허 평가 시스템 시범 도입 및 행정업무 자동화(과제당 처리시간 75% 단축)를 통해 연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인정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개방형 연구실 운영 및 공동활용 장비 확대, 핵심 광물 국제포럼 주도 등 5대 전략 분야 기반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성과가 우수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극한 기후위기 대응 기술로 영남권 산불지 국민안전 확보 및 강릉 가뭄해결 기여 → ‘극한 기후위기 대응 기술로 영남권 산불지 국민안전 확보 및 강릉 가뭄해결 기여’는 복합재난대응을 위한 지질·수문·AI 기반 기술 개발과 산사태 예측 정확도 85% 이상의 선진 수준 기술 구축, 현장 검증을 통한 기술 혁신성 입증 • (대표연구성과②) 미래발생 폐자원(폐배터리/폐전기 전자제품 등) 재활용 기술사업화 →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중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미래 발생 폐자원을 대상으로 전처리-선별-정제-실증-기술이전까지 전주기를 아우르는 사업화 지향형 재자원화 기술을 구현 • (대표연구성과③) 탐해3호 심해 탐사역량 강화를 통한 서태평양 고농도 희토류 부존 발견 → 심해 코어링 및 지구물리탐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 탐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서태평양심해 내 상업적 수준의 희토류 부존을 확인할 수 있는 탐사 역량을 확보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영향력 상위 10% 학술지 논문 발표 비율 → 상위 10% 논문 비율을 핵심 지표로 전면화하여 연구수월성 중심의 성과관리 의지를 제도화한 점이 긍정적임 ② 기술로 수입 → 대형 기술이전 의존에 따른 연차 변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형 기술이전 확대와 반복형 로열티* 계약 비중을 높이고, 유망특허 → 기술이전 → 수입 연계 구조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 강화 필요 ③ 기술이전 실시율 → 계약 규모, 재계약·확장, 현장 적용 등 질적 성과와 국외 특허 기반 글로벌 라이선싱 실적을 함께 관리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해야 함 ④ 지오빅데이터 오픈 플랫폼 활용도 → 조사·탐사 등 전 영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여 플랫폼 활성화 성과가 인정됨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5) 한국기계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Digital-KIMM 달성을 위한 AX/DX 혁신 기반 구축 → 온프레미스 AI 공용 플랫폼 및 고성능 GPU(H200) 서버의 적기 구축, 'AI-Ready' 과제 운영과 AX/DX 정부수탁사업 전략적 확대로 연구·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함 • (경영혁신사례②) 인재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 → 'B·E·S·T 기반 혁신경영체계'를 정립하고, 3R(유치·유지·재교육) 인재 관리와 KIMM-FBO 브랜딩을 통해 인재 중심의 조직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 ⇒ (재정 및 인적자원 전략적 관리) 재정 및 인적자원 배분근거 활용 체계 → 비전략 분야 비중이 '22년 13.2%에서 '25년 4.2%로 감소하는 성과 달성
	상위 평가	• 비전략 분야는 기반구축, 중소기업기술지원,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연구기획사업, 인력 양성 및 교육, 국제협력사업으로 전략적 연구분야와 상대적으로 관련 없는 사업으로 구성됨 • 비전략분야에 대한 정의, 분류, 비전략부분 특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평가의견 (안)	• 지자체·학계·글로벌 연구기관 등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산·학·연 개방형 혁신 기반을 강화함
개방형 협력성과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세계 최고 수준의 無필터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확보 및 실증 → 초미세먼지·오존·에너지 효율의 3대 난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였으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증을 통해 기술의 성능과 경제성·안정성이 검증됨 • (대표연구성과②) 기계 엔지니어링 가상공학플랫폼 개발 및 확산 → 기관의 고유 임무, 역할 및 책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외산 의존도가 높은 가상공학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함 • (대표연구성과③) 디지털트윈 기반 AI 자율제조 원천기술 확보 및 구현 → AX 중심 기관의 역할과 산업계에 중요한 성과로서 미국 DTC에서 이차전지 분야 참조모델 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AX역량 → 평가의 객관성·확장성 확보 및 AX 역량 향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② 기계산업 DX역량 → 디지털 전환의 성숙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함 ③ 총 연구비 대비 기술료 비중 → 산업화 R&D 중심의 출연(연)으로서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연구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를 설정함 ④ 전체 특허 출원 대비 해외 특허 출원 비중 → 해외 특허의 활용률 제고 전략 및 IP 유지·병행을 위한 비용 효율화 방안 필요 ⑤ 전체논문 중 JCR 10% 이상 논문 비중 → 기관 전반의 균형적인 연구 수월성 확보 등 전사적 차원에서의 논문 성과에 대한 질적 관리가 동반되어야 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6)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대형성과 창출을 위한 초융합 환경 조성 →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 활동과 성과평가·보상체계를 연계하여 대형 연구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기반 연구문화 확산을 도모함 • (경영혁신사례②) 초격차 R&D 성과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 심층면접 및 사업 제안서 평가 등 인재 선발제도를 개선과 산업계 고경력 전문가 참여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기획-수행-사업화 단계 전반에서 외부 전문성 활용 연구 수행체계를 도입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산·학·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MOU를 체결하여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 점이 우수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출연(연) 기술사업화 한계를 극복하는 시장적기진입 기술개발 → 시장 적기진입 과제 운영을 통해 기술이전 8건과 딥테크 창업 1건을 도출하고 R&BD형 추진체계를 통해 출연(연) 기술사업화 한계를 극복하는 참고 모델을 제시함 • (대표연구성과②) 우주 극한환경 대응 차세대 경량/유연 태양전지 기술이전성과 창출 → 페로브스카이트/CIGS 탠덤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무게당 출력비와 고효율 동시 달성으로 연구완성도와 총 55억 원 규모 기술이전 성과를 동시에 입증함 • (대표연구성과③) 대기업 기술난제 해결 성공후불제 기술 개발 → 성과 수준과 상징성은 우수하나, 기술적 차별성과 정량적 성과 입증 수준, 대표연구성과 핵심 기술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함
	중간 점검	• 성과의 질, 사회적 기여, 영향력 등의 식별성의 약화라는 의견은 다소 부적절함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성과의 질이나 사회적 기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핵심기술 또는 성과의 범위와 실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 기술 수준 판단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소명 검토	• 관련 의견 제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체평가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와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주는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② 대형 기술이전 건수 → 기술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가능하도록 장기 경상기술료에 대한 추적 가능한 지표 설정 중요 ③ JCR 상위 5% 이상 논문 비중 → 에너지 기술 분야 특유의 장주기 연구 성과나 실증·시스템 통합형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④ 정책수립 지원 건수 → 이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판단/평가 기준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함 ⇒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와 '대형 기술이전 건수' 간 중복성이 존재하며, 기술료 중심의 지표 구조가 큰 공공성·기반 기술 성과를 저평가할 우려가 있음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7) 한국전기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중장기 도전형 'KERI 큰기술' 제도 구축 및 문화 조성 → 국민 체감형 초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중장기 도전형 연구제도인 'KERI 큰기술'을 도입하고, 선정된 3개 핵심 기술에 대해 예산·인력·평가·자문을 연계 지원하는 패키지형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경영혁신사례②) K-전력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 지원 → 국제공인 시험·인증 체계 개선과 STL 멤버십 확대 등을 통해 시험료 수익을 확대하고 국내 전력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재정 및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 증가 비율을 '22년도 대비로 제시
	상위 평가	• 3개년 평균 혹은 전년 대비가 아닌 '22년과 대비한 사유 제시 또는 설명 요청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소명 검토	• 기관장 임기 개시('23.1.13)에 따른 운영 방향과 자원배분의 구조적 변화 반영과 '22년을 기준으로 실적보고서 양식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적용함 • 성과의 시계열적 변화 및 개선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권고 의견을 제시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글로벌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개소와 전기차 제조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학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연구·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잠수함 육상 성능검증을 통한 세계 최초 3,000t급 리튬이온 전지 기반 전기추진체계의 장영실함 진수에 기여 → 표준·규정이 부재한 고위험 기술 영역에서 표준·규정이 부재한 고위험 기술 영역에서 LBTS를 독자 설계·구축하고, 잠수함 추진체계 연동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세계 3번째로 잠수함 육상 통합시험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높은 기술료 수입을 달성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현안 해결 제안 → 향후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책적 파급력과 지속성, 중요도 차이,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개선 또는 일부 재설계가 요구됨 ② 산업전기 분야 건당 기술료 수입액 → 지표의 정교화·고도화 노력과 기술료 성과의 실증/제품화/표준/후속과제에 이르는 환류 구조가 함께 제시될 필요 ③ 논문 영향력지수(mrnlF) 80 이상 게재 비율 → '25년도에 이미 '29년 목표까지 달성한 만큼, 도전적 목표치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비율 지표의 특성 한계를 고려한 개선 또는 핵심지표 재설계가 요구됨 ④ 전력기기 분야 해외 시험료 → 단순 시험료 수입이란 양적 지표의 한계를 넘어 기관의 지속적인 혁신과 도약을 위해 양적 성과에 향후 기관의 중장기시험기술 고도화, 신규 시험 개발 및 국제 표준 선도 활동과 같은 질적 성과를 반영한 지표로 재설계 필요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8) 한국화학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출연(연) 최초 맞춤형 상생협력(화학(연)-공급기업-수요기업) 혁신 플랫폼 구축 → 중점산업 공급망 분석에 기반한 5대 맞춤형 상생협력 모델과 '이어달리기형' 유치 전략으로 6개 컨소시엄을 체계적으로 발굴함 • (경영혁신사례②) 중·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소통·협업 문화 정착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 통상의 조직 관리 업무 범위를 넘어선 독창적인 전략성과 기관 차원의 거시적 파급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CCU 산업육성협의체(산학연 87개 기관)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글로벌 TOP 1,000억 원 사업을 수주한 것은 산·학·연 협력 선도 우수 사례임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잉크젯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이전(8억) 및 세계 최고 수준 대면적(200cm² 이상) 모듈 효율(21.5%) 달성 → 소재 최적화-공정 개발-기업 협력-기술이전-제품화 로드맵까지 연결된 구조와 산·연 협력 네트워크 기반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수행과정이 매우우수함 • (대표연구성과②) 굴패각 재활용 칼슘 화합물의 친환경 제조 기술 개발 및 대형 해외 공급 계약(120억 원) 체결 → 방치되는 굴패각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정 기술 확보 및 프리미엄급 칼슘 화합물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해 대형 글로벌 사업화에 성공함 • (대표연구성과③) 바이러스 제거용 분리막 대면적화 제조·모듈화 기술이전 (3.5억 원) 및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 바이러스 제거율 성능 구현 →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바이러스 제거용 분리막 기술의 국산화 및 글로벌 선도기업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달성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큼
	중간 점검	• 유사한 성격의 '에기연 대표연구성과②' '우수' 등급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정 측면에서 어떤 차별화된 우수성에 따라 등급 부여했는지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평가	• 10년 이상 축적된 원천기술과 산·연 협력 기반 체계적인 수행, 소재와 공정의 통합적 접근으로 제품화까지 가치 사슬 연계형 생태계 구축이 매우 우수함
	소명 검토	• 체계적인 연결된 구조와 산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개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부분이 인정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등록 특허기술이전율 → 화학산업 지향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와 잘 부합하며, 연구성과의 실용성과 산업계 활용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함 ② 기술료 → 연구성과의 경제적 가치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성과 관리 및 사업화 전략 수립에 유용하지만, 1인당 기술료 등과 같이 질적인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함 ③ 화학 기술혁신지수 → 화학 및 융·복합 연구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연 특화 질적 계량지표를 설정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19)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글로벌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및 연구자 Empowerment를 통한 동기부여 강화 → 기관 명칭 변경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연구 생산성이나 대외 수주 경쟁력 강화 등 정량적 성과로 입증할 지표 마련 필요 • (경영혁신사례②)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를 활용한 업무 지능화·자동화 → 국가독성AI 데이터센터 신설, 오가노이드 플랫폼 구축 등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과 분석비용 10% 절감, 데이터 자산화를 달성
	상위 평가	• 3개년 평균 혹은 전년 대비가 아닌 '22년과 대비한 사유 제시 또는 설명 요청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 지역 조직의 적극적 참여 및 대국민 과학문화 관심도 제고 필요, 매년 실적 향상에는 한계 극복을 위한 목표치와 지표 개선 검토 필요
	상위 평가	• 지역조직의 참여와 대국민 과학문화 관심도 제고 필요성 제기,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표 개선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매우우수' 등급 부여 판단근거와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 대국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내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에도, 기관 홍보, 사회공헌, 과학문화 활동 간 자원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적극 추진함
	소명 검토	• 상위평가에서 요구한 '매우우수' 등급 부여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를 적절하게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제시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세계 최고 차세대 발달신경독성(Developmental Neurotoxicity) 대체시험법 개발 → 국제적 동물실험 대체 규제 강화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발달 신경독성 분야에서 체브라피쉬 기반 대체 시험법을 '국제표준 제안' 단계까지 연결한 점이 우수함 • (대표연구성과②) 세계 최고 면역-조직 상호작용 기반 첨단바이오헬스케어 안전성 평가 플랫폼 개발 → 기존 시험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면역 매개 부작용과 조직 특이적 독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한 성과임 • (대표연구성과③) 세계 최초 신규 유해화학물질 '6-PPD'의 인체 독성영향 기전 규명 → 단순 독성 관찰에 그치지 않고 인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를 통해 규제 과학 및 위해성 평가에 직접 활용 가능한 근거를 제시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JCR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 →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국제적 신뢰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타당하나, 향후 목표치가 성과 수준 대비 보수적으로 설정됨 ② 글로벌 제약기업으로부터의 대형 독성평가시험 유치 규모 → 국제적 시험평가 역량·기술 신뢰성을 직접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재수주율, 장기 계약 전환 여부, 서비스 범위 확대 등과 같은 질적 성과를 보조 지표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③ 특허 활용률 → 기술이전·사업화 등 산업 기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나, 관리 지표의 성격이 강해 기관의 대표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20) 한국원자력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3년 단위 중점목표관리제 고도화를 통한 대형성과 창출 기반 마련 → '3년 단위 중점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전략목표와 중점목표 간 연계율을 46%에서 88%로 개선하는 등 전략-자원배분-성과평가 연계 체계를 구축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소외 지역 대상 과학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SMR 중심 콘텐츠 운영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미국 미주리대학교 차세대연구로(NextGen MURR) 설계 사업 수주 →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서 국내 최초 연구로 설계 수주에 성공하며 기술 수혜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 • (대표연구성과②) 세계 유일 소듐원자로(SFR) 종합시험설비 'STELLA-2' 활용 제4세대 원전 기반 기술 수출 → 세계 유일 소듐원자로(SFR) 종합시험설비인 「STELLA-2」를 활용한 제4세대 원전 기반 기술 수출 달성으로 국제 기술 경쟁력 입증 • (대표연구성과③) '하나로' 연속 계획운전 225일 신기록 달성으로 이차전지·조선 등 국가 미래산업 혁신성과 창출에 기여 → 국가 핵심 연구인프라 운영을 통한 사회·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고, 「하나로」 운영 신뢰도 향상을 통해 산업 전반(이차전지·조선·반도체·의료 등)에 걸쳐 중성자 기반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공공 연구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해외 사업수주액 및 기술수출료 → 실적을 당해 투입 예산 및 인력 대비 기관의 기술 영역 또는 조직별로 비교, 제시할 수 있는 실적 도출 방법과 산식을 개선하여 적절성 보강을 제언함 ② 대형 양자빔 시설 공동 활용률 → '대형 양자빔 시설 공동 활용률'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활 편의 증진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적절하며, 성과관리 측면에서 활용률이라는 정량 지표는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며, 시설 운영 효율 개선이나 공동 활용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③ 논문 mrnIF 평균 → mrnIF가 평균 70을 넘는 것은 국가 R&D 평균 mrnIF(약 68)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학술 성과가 상위 수준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함 ④ 연구소기업 5년 누적 생존율 → 성과의 단기적 창업 수의 증가 여부가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실질적 지속성과 자립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서 기관의 공공적 책무와 부합함
	상위 점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21) 한국재료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소재 실증 허브 조성(외연 확장)과 본원 공간 재설계(내실 강화)로 공간이원화 혁신 →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1단계 완공으로 기초연구(본원)와 상용화 지원(연구단지)을 이원화하여 기술 실용화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 혁신적 시도임 • (경영혁신사례②) 단순수행을 넘어 국가소재 전략의 주체로 정책·기획 허브 역할 수행 → 분산된 조직의 일원화와 전략적 인력 배치를 통해 국가 R&D 투자 전략을 선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 인정되나, 실질적인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고도화 근거가 부족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개별 활동별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전체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소변으로 4종 암 동시에 진단하는 암 진단 소재 → 대규모 임상·글로벌 인허가·사업화 지표 달성 등 후속 단계에서의 구체적 성과 필요. (미국) FOX TV, (독일) Spiege 등 국내·외 주요 매체를 통한 국민체감도 제고에 노력함 • (대표연구성과②) 전량 중국에 의존하는 희토류(Dy, Tb) 배제 영구자석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를 배제 또는 저감한 영구자석 개발 기술 확보로 국가전략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산업의 부품을 국산화를 이루어냄 • (대표연구성과③) 더 가볍고 안전하게, 1.4조 원 수출 계약 이끈 차세대 마그네슘 → 마그네슘의 3대 난제인 발화, 부식, 난성형성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여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연구 성과의 직접 사업화 성공 모델을 제시함
	상위 평가	중간 점검	• '25년 식약처, FDA 인허가와 실제 상용화 성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제시 필요 • FOX TV('23.3), 독일('21.3) 등 '25년 실적으로 판단한 근거 제시와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부처 소명	• 인허가와 상용화 관련, 최상위 상급종합병원과의 다기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임상, 사업화 등 후속 단계를 위한 노력 중이며, 이전 연도 실적은 참고사항으로 제시함
		소명 검토	• 연구성과에 대한 재료연의 노력과 이전성적을 '25년도 실적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소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연구직 1인당 기술료 → 세계적 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목표치 설정 등 전략이 필요함 ② 특허비용 대비 기술료 비율 → 특허비용과 기술료 발생 간의 시차로 인해 당해 연도 단순 비교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특허비용 축소로 인한 효과와 기술사업화 경쟁력 상승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 ③ 특허 활용률 → 사업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 기술의 특성상 연도별 활용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④ JCR 상위 5% 이내 연구직 1인당 논문 수 → 일부 연구자의 성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 변화 및 세부 분야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목표 조정이 필요함
	상위 점검	중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경영혁신사례①) 공공-민간 협력 강화 및 핵융합 정책 Think-tank 역할 강화를 통해 '30년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 기반 구축 → 핵융합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정책 공론화 추진,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 등 핵융합 상용화 기반을 마련함 • (경영혁신사례②) 출연(연) 최초 팀 단위 조직진단과 참여형 소통체계를 통한 출연(연) 소통·협력 조직문화 선도 → 출연(연) 최초로 팀 단위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도입하여 연구팀 중심의 협력 문화를 강화하고 구성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개별 활동별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전체 활동을 통합적으로 계량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과학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
	상위 평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ITER·DEMO급 핵융합 실증로를 위한 플라스마 운전제어 기반 불순물 제어 기술 실증 → 핵융합 실증로 실현의 장애 요인을 혁신적인 플라스마 운전·제어 기법으로 제어하며 주목할 만한 기술적 진전을 달성함 • (대표연구성과②) 플라스마 원천기술로 선박 배기가스 CO₂50% 감축을 실현한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 → 독창성과 사회적 파급성을 갖춘 선박 배기가스 CO₂ 감축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이전까지 연계함 • (대표연구성과③) ITER 한계를 넘는 곡면 디버터 타깃 제작·검사 독자기술 확보로 핵융합 핵심부품 기술 주도 → 핵융합 기술의 핵심부품인 디버터 타깃 제작·검사 독자기술 확보는 기술 자립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함
	상위 평가	•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우수 등급을 부여함 • 기술적 신뢰성과 확장 가능성 모색만으로 우수 부여는 객관성, 구체성 미흡 (자체평가 부적절)
	중간 점검	• 추가 물질 투입이나 융합로 정지 없이 연속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이 충분한 경제성 확보. KSTAR 핵융합로의 경우 2007년 완공 이후, 초기 핵융합연구 성과 창출 및 해외 교류의 충추적 역할을 20여년 가까이 수행함
	소명 검토	•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가시적인 실현 관점에서 자체평가 우수 등급은 과도하며, 적절성 관련 근거 또는 비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부적절(평가등급 내 점수조정)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핵융합 초고성능 플라스마 운전 조건 달성을 → 실증로에 요구하는 초고성능 운전조건을 동시 달성이 아닌 조건별 분리 달성 후 평균화하는 방식으로 설정한 점은 지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접근임 ② 초전도 핵융합장치 운전 신뢰도 → 복합 시스템의 종합 성능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지표로, 세부 기술 요소별 성과 수준이나 병목 요인의 정밀한 파악에는 제약이 있음 ③ 핵융합 시뮬레이션 핵심 코드 확보율 → 핵심 시뮬레이션 코드 확보 관련 성과지표는 연구개발단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함 ④ 플라스마 기반·참조 데이터 구축 건수 → 데이터 건수 확보의 정량적인 목표 설정 안에 단순히 건수 확보보다는 데이터 자체의 파급력과 같은 질적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함
	상위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2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평가항목	구분	주요 평가내용
기관혁신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비공개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개방형 협력성과	평가의견 (안)	• 비공개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대표연구 성과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 (대표연구성과①) 국가안보용 사이버 전략기술 연구개발 • (대표연구성과②) 국가공공기관 필수 보안기술 연구개발 • (대표연구성과③) 미래 국가안보 환경변화 대비 핵심 선도기술 연구개발 → 평가의견 비공개
	상위 평가 점검	• 점수조정 등 특이사항 없음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종합연구 실적	목표(성과) 및 평가의견 (안)	①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 ② 국가용 암호시스템 실용화 성과 ③ 독자적 취약점 검증 기술 생산지수 → 평가의견 비공개
	중간 점검	• 평가의견서 내 미흡한 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평가 기준과 성과지표에 대한 객관성·타당성 입증 근거 제시와 설명 필요 (자체평가 부적절)
	상위 부처 점검 소명	• 지난 2년간('23~'24년) 정보기관 내부 기준에 의해 산출된 과제의 평균 성과점수(87점)를 기반으로 목표치(88점)를 정하고, 동일 기준(정보기관 내부)에 의해 산출된 '25년도 과제의 평균 성과점수(90.8점)를 실적치로 하여 달성도(103%) 산출
	소명 검토	• 국보연이 연구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의신청 내용이 인정됨
	최종결과	• 자체평가 결과 적절(점수조정 없음)

※ 국가보안연구소의 경우 국가 보안 사항이 다수 존재하여 성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로 표시함

부 록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위원('26년 1차)



■ 상위평가위원회 명단

- 위원장: 김우승 원장(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상위평가위원(가나다순)

위원명	소속	전문분야	비고
강태욱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화학공학, 나노플라스모닉스	
곽상희	(주)싸이텍코리아	에너지재료	
김경훈	카카오	경영공학	
김광무	(주)브레인유	전자공학	
김대성	테트라알파	환경공학	
김대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 로봇 및 지능시스템	
김미혜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수학	
김선애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위생/안전	
김소영	CJ제일제당 BIO사업부문	식품생명공학	
김승섭	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질지구물리학	
김영수	(주)금아하이드파워	정밀공학	
김영희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지구물리학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분과장
김정선	LG유플러스	디지털미디어(빅데이터)	
김정은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행정학	

위원명	소속	전문분야	비고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공학, 기능성식품	
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학, 과기정책	
김호식	가톨릭대학교 의학과	생화학	
노준홍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재료공학	
문병석	콜마홀딩스	식품, 바이오헬스	
박상혁	한미글로벌(주)	토목공학, 건설경영	
박정홍	HD현대일렉트릭	전기공학	
박종민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생명과학	
박종환	전남대학교 수의학과	수의학, 실험동물의학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구조공학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경제학, 기술정책	분과장
설영실	한국전력기술(주) 인재개발원	원자력공학	
손은주	(주)바이오엠피	식물세포생물학	
심형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원자로물리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교통학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기술경영학, 과기정책	분과장
엄문호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생명화학공학, 바이오에너지	
육상현	지아이텍	물리학, 스마트팩토리	
윤봉요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공학	
이제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정보통신	
이진욱	송실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공학	

위원명	소속	전문분야	비고
이창식	(주)에이에이티	지질해양학	
임대철	LG전자 생산기술원	기계공학, 정밀기계	
임채권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과기정책, 전기컴퓨터공학	
장수빈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한의학	
전혜경	(주)씨에스리	생명화학공학	
정대웅	부산대학교 나노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자공학	
정모세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플라즈마물리, 핵융합	
정선경	한국자동차연구원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조인성	(주)제이엘티	전자재료공학	
조일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기전자공학, 뇌과학	
조재선	(주)미래와도전	원자핵공학	
천동필	국립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기술경영	
최영진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물리학, 나노융합	
최은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물학, 면역병리학	
최주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물리학	
최창호	정보통신서비스연구원	컴퓨터공학	
한승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독성학, 면역학	
함경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기전자공학	
허균영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	
현덕수	(주)피엠에너지솔루션	기계공학, 화학공학	
홍진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핵공학	
홍희정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자전기공학	
황청연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해양미생물학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제9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삭제
-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26년-1차)

- ◆ 인 쇄 | 2026년 6월
- ◆ 발 행 | 2026년 6월
- ◆ 발 행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동 보고서의 내용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화 : 044-202-6932
- 팩스 : 044-202-604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 연구개발평가센터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39
- 전화 : 043-750-2363
- 팩스 : 043-750-2680

2026년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상위평가보고서
(26년-1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